

2008학년도 교과교육혁신지원단

문학 용어 사전

국어 B팀	자문위원 (장학사)	채홍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연구 교사	심상일(대전만년고) 김기신(유성고) 김우진(충남고) 김태훈(지족고) 박민정(대전괴정고)

차 례

I. 소설

1. 갈등의 유형	1
2. 갈등의 양상	5
3. 극적 긴장감	9
4. 문체의 종류	11
5. 골계미	15
6. 사건의 반전	17
7. 사건의 병렬적 구성	20
8. 삽화 형식	23
9. 풍자의 어조	26
10. 배경	29
11. 서사	34
12. 서술 방식	37
13. 일대기 형식	42
14. 요약적 서술	46
15. 의식의 흐름	48
16. 인물의 유형	51
17. 인물의 태도·정서	55
18. 관습적 표현	57
19. 회화화	60
20. ‘꿈속 꿈’ 구조	63
21. 율문투	66
22. 고전 소설의 독자	68
23. 고전 소설의 유통	71
24. 사건전개의 속도	73
25. 사실성	77
26. 현학적 표현	80
27. 초월계	84
28. 고전소설에 출제된 속담 및 한자성어1	87
29. 고전소설에 출제된 속담 및 한자성어2	92

II. 현대시

1. 관조적 태도	97
2. 성찰	99
3. 시상 전개 과정-회상	101
4. 시상 전개 과정-선경후정	103

5. 시간표현	105
6. 반어	109
7. 역설	111
8. 상징	114
9. 낮설게 하기	116
10. 주술적 언어	119
11. 자아와 세계의 분열	121
12. 상승/하강 이미지	124
13. 대답과 대비	127
14. 감각적 표현(심상)	130
15. 미적범주	134
16. 해학	137
17. 시상의 확장 및 반전	139
18. 화자와 대상의 거리	144
19. 애상적 분위기	148

Ⅲ. 고전시가

1. 자연친화 의식	151
2. 감정이입	153
3. 관념적 속성	155
4. 감각화	157
5. 주체와 객체의 전도	161
6. 정서의 심화	163
7. 심리적 거리	165
8. 자연과의 합일	167
9. 향토적 분위기	170

Ⅳ. 희곡

1. 언어유희	172
2. 교차편집	176
3. 플롯의 긴밀한 연결	179

Ⅴ. 2009 수능 용어정리

▶ 변형(테로프마송)	184
-------------------	-----

1. 小説

1. 갈등의 유형

‘갈등의 주체를 기준으로 나눈 갈등의 종류’

■ 수능 답지 보기

1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구술 면접 시험에서 윗글에 대해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대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일제 식민 통치의 만행을 사실적으로 폭로했다고 생각합니다.
- ② 전통에 집착하는 인물의 일그러진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③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인간의 이타적 속성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 ④ 유교 경전의 해석과 수용을 통해서 전통의 현대적 의미를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⑤ 사투리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전통적 가치를 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2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번 문항

※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군.
- ②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 ③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군.
- ④ 줄표(—)와 줄임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 ‘갈등의 유형’이란?

‘갈등’은 한 인물의 내부의 혼란이나 한 인물과 그를 둘러싼 외적 요소와의 대립을 말한다. 이 갈등은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고 작품에 극적 긴장감을 더해 역할을 한다.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 일반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내적 갈등 : 한 개인의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로 주로 개인 내부의 심리적 모순과 대립에 의한 갈등이다.
- 2) 외적 갈등 : 인물과 인물, 인물과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 ①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 주로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사이에서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태도가 다를 때 발생한다.
 - ②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 :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 윤리나 제도와 갈등이다.
 - ③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 : 개인의 삶이 운명에 의해 결정되거나 파괴되는 데서 겪는 갈등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역마

김동리

<줄거리> 혼자 살고 있는 마음 착하고 인심이 좋은 옥화는 아들 성기의 타고난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사주 팔자에 의해 역마살이 끼면 집에 머물지 못한다기에 이를 지우기 위해 성기를 쌍계사 절에 보내 장날만 집에 와서 있으면서 장터에서 책을 팔게 한다. 어느 날 체장수 영감이 과년한 딸 계연을 데리고 옥화네 주막에 와서 그녀를 당분간 맡기로 떠난다. 성기와 계연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된다. 옥화는 성기가 결혼해서 정착함으로써 역마살을 물리칠 수도 있기에 마음 한편 기대가 컸다.

그러나 체장수가 돌아옴으로 해서 옥화가 체장수 영감의 딸임이 밝혀지고, 계연은 성기의 이모로서 천륜에 의해 결혼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결국 옥화네를 떠나게 된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마취 주."


하였다. /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 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빠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개인 「화개장터」삼거리릴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 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마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윗목 판에는 새하얀 가락 옛이 반넘어 들어 있었고, 아랫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 때도 지나 그려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하동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해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무렵 되어서는, 옥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운명적으로 주어진 역마살에 둘러싸여 있다. 이 역마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혼을 통해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 성기가 사랑하던 계연이 옥화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결혼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성기가 역마살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유랑의 길을 떠나는 결말은, 운명을 거스

르지 않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는 한국적인 운명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역마’는 운명과 인물의 갈등에서 인물이 운명에 순응하면서 작품의 결말에 이르게 작품이다.

1. 小説

2. 갈등의 양상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구체적인 상태’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52번 문항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47번 문항

※ [A]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③ 자기 정체성에 대해 책상물림이라고 자조(自嘲)하고 있다.
- ④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이상과 가족들의 기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 ‘갈등의 양상’이란?

갈등의 일반적인 유형은 1) 내적 갈등 2) 인물과 인물의 갈등 3) 인물과 사회의 갈등 4)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다. 그러나 갈등은 각 작품마다 독특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화된 틀로는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품마다 드러나는 갈등의 구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를 ‘갈등의 양상’이라고 한다.

갈등은 인물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전개와 함께 갈등은 고조되거나 해소되므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할 때 사건과 인물의 성격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한다. 갈등은 ‘000이 *** 때문에 000와 ###한

다.’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영철이
가 영희와의 사랑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말다툼한다.’라고 갈등을 구체적
으로 파악해야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갈등의 유형

		발생 원인	작품
내적갈등		인물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모순과 대립	이상, ‘날개’
외 적 갈 등	인물 대 인물	인물과 적대적이거나 반동적인 인물과의 갈등	황순원, ‘학’
	인물 대 사회	인물과 그가 속한 사회적 환경과의 갈등	김성한, ‘바비도’
	집단 대 집단	집단과 그것에 적대적인 집단과의 갈등	이기영, ‘고향’
	인물 대 운명	인물의 삶이 그가 타고난 운명에 의해 좌우되 는 데서 오는 갈등	김동리 ‘역마’
	인물 대 자연	인물과 그 행동을 제한하는 거대한 힘을 지 닌 자연 환경과의 갈등	헤밍웨이, ‘노인 과 바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봄봄

김유정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졌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때엔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펴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냥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러버렸다.

"부려만 먹구 왜 성례 안하지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허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넬이라두 성
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
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번은 장인님이 혈떡혈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아!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하고 두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 그래두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찢찢 땀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눈엔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짊 움키고 잡아나왔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 솜으로 손수 지져 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만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뚜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 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라부라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 아! 이놈아! 놈아, 놈아."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쉼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맹졌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놈아, 놈아, 놈아, 놈아."

그래도 안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 나왔다.



- ❶ 위 작품에는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장인 영감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핑계로 ‘나’와 점순이와의 혼례를 미루면서 부려먹기만 한다. 그러던 중 점순이의 편잔을 들은 ‘나’는 장인 영감과 갈등을 일으킨다. 데릴사위로 착실하게 일해 온 ‘나’는 성례 문제 때문에 욕심 많은 장인과 다투고 있다.

1. 小説

3. 극적 긴장감

‘갈등이 심화되어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6월 의평가 52번 문항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나)의 를 <보기>로 바꾸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그의 부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 거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 때 그들을 구해 준 것은 바로 점순네였다. 점순네의 도움으로 그들은 집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양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빌려다 먹을 수 있었다.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의 부모는 늘 고마워했고 인품으로는 그런 집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순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이가 열일곱이나 되는 그가 동갑인 점순과 어울려 다닌다면 동네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번한 노릇이고, 또 자칫 마름집을 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무례한 행동으로 소작지가 떨어지고 집에서도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 ① **극적 긴장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 ② 인물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③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 ④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 ‘극적 긴장감’이란?

‘극적’의 사전적 의미는 ‘극을 보는 것처럼 큰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즉 ‘극적’이라는 말에 긴장감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굳이 ‘극적 긴장감’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극적 긴장감’ 혹은 ‘긴장감’이라고 표현된다.

‘극적 긴장감’이란 갈등이 심화되면서 위기감 혹은 긴장감 고조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춘향전」 수청을 요구하는 변사또에 대해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할 때 극적 긴장감은 고조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운수좋은 날

현진건

김침지는 핫증을 내며 확신있게 소리를 질렀으며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일 원어치를 채워서 곱빼기를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굶은 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김침지는 취중에도 설령탕을 사 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똑 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어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일 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침지가 주기를 띠지 않았던들 한 발을 때문에 들여놓았을 제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靜寂)---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깨뜨린다느니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뻑뻑거리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젓 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뻑뻑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젓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젓을 빨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 김침지는 병든 아내를 집에 두고 밖에 나가 일하면서 하루 종일 걱정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극단적인 불안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집안은 무덤 같은 침묵이 감돌고 있고, 어린애는 죽은 어미의 젓을 빨고 있다. 김침지의 불안이 실제로 확인되기 이전의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다.

1. 小説

4. 문체의 종류

‘문체 = 문장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문장의 개성적 특성)’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번 문항

※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군.
- ②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 ③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군.
- ④ 줄표(—)와 줄임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2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 <보기> 중,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보 기>—

- ㄱ. 인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 ㄴ.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반복된다.**
- ㄷ.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된다.
- ㄹ.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 ‘문체의 종류’는?

문체는 문장에 드러나는 작가의 특성을 말한다. 작가마다 ①단어의 선택, ②문장의 길이, 해학성이나 풍자성 등의 ③언어 사용 방식, 비유·상징·반어 등의 ④표현기법을 쓰는 취향 등이 달라서 문체의 차이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문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간결체 : 문장을 짧게 끊어 간결하게 표현한 문체
- (2) 만연체 : 섬세한 감정을 자세하게 표현하여 문장을 길게 쓴 문체
- (3) 강건체 : 말하는 투가 굳세고 강하여 호소력이 느껴지는 문체
- (4) 우유체 : 말하는 투가 부드럽고 온화하여 다정하게 느껴지는 문체
- (5) 화려체 : 아름다운 말과 음악적인 리듬, 색채감 등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꾸미는 말을 사용하여 글을 화려하게 쓴 문체.
- (6) 건조체 : 문장에서 꾸미는 말을 없애고, 전달하려는 내용만을 쓴 문체
- (7) 문어체 : 일상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글에서만 쓰이는 옛스러운 문체
- (8) 구어체 :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문장에 사용한 문체

■ 작품으로 이해하기

광장

최인훈

[앞의 줄거리]

광복 직후,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에 환멸을 느낀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과정에서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삼국으로 떠난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뱃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짝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 있게 밟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우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 문을 연다. 총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흥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밟아 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 보는 시늉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9번 문항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짧은 문장의 효과는 문장이 길어질 때 생기는 심리적 여백을 줄이고, 단순한 행동들을 급박하게 서술함으로써 불안정한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문체는 개인의 개성을 넘어서서 이야기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1. 小説

5. 골계미

‘우스꽝스러움의 미학’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수능시험 42번 문항

※ (나)와 (마)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계미**가 살아나고 있다.
- ② (마)는 (나)에 비해 작중 상황이 급박하여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③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④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 ⑤ (나)가 산문적 표현에 가까운 데 비하여, (마)는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 골계미

골계미는 보통 '우스꽝스러움'이라고 해석되며 웃음을 자아내는 문학의 모든 요소에 폭넓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보다 하위 범주로 기지, 풍자, 반어, 해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골계는 크게 객관적 골계와 주관적 골계로 나누어진다.

객관적 골계는 웃음거리가 되는 대상 그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에 의지하는 골계로서 대상을 우습게 하려는 작가의 계산된 배려가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는 웃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더욱 자연스러운 골계이다. 찰리 채플린의 모습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골계는 작가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웃음의 장치이다. 객관적 골계에 비해 복잡한 미적 범주이므로 작가의 고도의 통제 능력이 없다면 작품의 파탄을 가져오게 할 위험이 크지만, 한편 복잡 다단한 모순 덩어리로서의 인간 존재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문학적 장치이기도 하다. 김유정의 '봄 봄', '동백꽃' 등의 작품이 그 예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적벽가

[중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루루루 날아 나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얼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썹움썹하니 정욱(程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늘여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밝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큰 장기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❶ 조조가 싸움에 크게 패하고 도망치는 장면이다. 추격을 두려워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엉뚱한 말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게 허세를 부리는 우스꽝스런 모습에서 골계미를 느낄 수 있다.



1. 小說

6. 사건의 반전

‘사건 전개의 급작스런 변화’

■ 수능 답지 보기

1 2004학년도 수능시험 30번 문항

※ 위 글에서 ‘석탄’ 이 갖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의 분위기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 있다.
- ② 여러 장면을 묶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된다.
- ③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 ④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사건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 사건의 반전

극의 전환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극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주인공의 운명이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한데서 유래한 말. ‘반전’은 희극에서 주인공의 불행한 운명이 행복하게 전환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소설에서 독자가 예상하고 있었던 사건의 전개가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인해 정반대의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바람의 화원

이정명

<앞부분 줄거리>

조선시대, 김홍도와 신윤복을 둘러싼 그들의 그림과 그에 얽힌 이야기가 주된 흐름이다

하늘 아래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단원 김홍도와 신윤복은 도화서의 스승과 화원이라는 신분으로 만난다.

궁중 화실 도화서는 엄격한 유교적 화풍에 따라 절제되고 규격화된 그림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자유롭게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신윤복은 결코 도화서에서 행복할 수 없고 배울 것도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제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스승 김홍도의 예술인으로서의 노력이 이어진다.

정조의 특별한 명으로 십 년 전 도화서의 수석화원과 그 수종화원의 의문의 죽음을 조사하던 김홍도는 죽은 화원이 남긴 의문의 초상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신윤복이 궁중화원 신한평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친구였던 죽은 화원의 자식임을 알게 된다. 십 년 전의 사건을 조사 하던 중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고 두 화원의 갈등과 믿음도 깊어진다.

신윤복은 부친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고자 자신의 후원인인 김조년과 내기를 하게 되고, 김홍도는 신윤복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해 그림대결에 나서서 신윤복과 함께 김조년을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신윤복은 거리의 화가가 되어 바람같이 사라지게 된다. 김홍도에게 자신의 자화상격인 미인도를 남기고...

<반전부분>

얼음처럼 차가워진 윤복을 바라보며 홍도는 말을 이었다.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너 자신까지 속일지라도 네 존재의 진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제가 누구의 핏줄인지 아시는 터에 더 이상 어떤 진실을 말하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면서 언제나 말하고 싶었던 진실, 네가 지금껏 멍에처럼 짊어지고 오면서 내내 벗어버리고 싶었던 짐을 이제 내려놓아라.”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홍도는 검고 깊은 눈동자 속의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고 싶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거짓을 받아들인 채 안온한 것보다 나올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내가 죄지으며 살아야 하겠느냐. 너를 내 마음에 담은 그날부터 나의 삶은 죄 많은 삶이었다. 너를 생각할 때

마다 나는 죄인이었고,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짐승같은 놈이 되어야 했다. 왜 나의 꿈속에까지 찾아온 것이냐? 왜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은 것이야?”

모멸감과 따뜻한 안도감이, 자책과 뜨거운 애정이 두 마음을 어지럽혔다. 수많은 시간을 건너 눈빛과 눈빛은 공중에서 엮혔다가 풀어지고 다시 엮혔지만 서로의 눈동자에 온전히 전해지지는 못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은 지금처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한평 어른의 아들로.....”

냉담한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홍도의 마음바닥에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 냉담은 마음속의 진실이 아니었다. 홍도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지난 십 년 동안 운복을 감싸고 있던 거짓의 껍데기를 벗겨야 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홍도는 억센 손길로 운복의 중치막 고름을 잡아당겼다. 고름이 힘없이 풀어졌다. 지금껏 운복을 옥죄던 거짓의 장막에 조그만 틈이 생기고 있었다. 홍도의 손길은 더욱 거칠어졌다. 허물이 벗어지듯 연한 하늘빛 중치막이 발치에 툭 떨어졌다. 푸른 비단 바지저고리가 드러나자 운복은 몸을 움츠렸다.

문득 홍도의 거친 손길이 얼어붙은 듯 멈추었다. 단단한 광목천이 탐스럽고 정결했을 하얀 가슴 위에 단단히 동여매어져 있었다. 홍도는 무자비하게 억눌린 그 슬픈 가슴을 바로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떨구었다.

“왜 이렇게까지 가야 했느냐?”

“서징의 딸도, 신한평 어른의 딸도 아닌 어른의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아녀자가 도화서 화원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아녀자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상상할 수 없으니깐요. 붓을 들려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야 했습니다.”

-  위 작품에는 김홍도의 제자로 도화서 화원으로 살아가던 신운복의 삶이 그림에 대한 애정과 정치적 갈등관계 속에 그려지고 있다. 도화서 화원이 되기 위해 자신이 여자임을 숨기고 살던 신운복의 정체가 극적**반전**을 통해 드러나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다.



1. 小説

7. 사건의 병렬적 구성

‘유기성이 없는 사건이 나란히 배열되는 구성’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수능시험 52번 문항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사건의 병렬적 구성

각기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사건들이 배열 되어있는 구성. 사건이 인과관계에 의하여 연결되거나 시간적·공간적 순서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2개 이상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구성방식.

■ 작품으로 이해하기

수난이대

하근찬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굴속에서 바위를 허물어 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는 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되었다. 만도가 불을 당기는 차례였다. 모두 바깥으로 나가 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냈다.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께름직했다. 모기에게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쭈시는 것이다.

격즉격즉 굵어졌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성냥을 득 그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내 픽하고 꺼져 버렸다.

성냥 알맹이 네 개째에서 겨우 심지에 불이 당겨졌다. 심지에 불이 붙는 것을 보자 그는 얼른 몸을 굴 밖으로 날렸다. 바깥으로 막 나서려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을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랫전을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슬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라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났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들었다. 달려들어가서 굴 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다. 고 순간이었다. 팡! 굴 안이 미어지는 듯하면서 다이내마이트가 터졌다.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났다.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 보니, 바로 거기 눈 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놓여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 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 으아!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재차 눈을 뗐을 때는 그는 폭삭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고, 한쪽 어깨죽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댔다. 절단 수술(切斷手術)은 이미 끝난 뒤였다.


꽤 --- 기차 소리였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았다. 만도는 앉았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두었던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흠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하였다. 췌랑췌랑 하고 종이 울자, 한참만에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 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꺼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띠지 않았다. 저 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룩거리며 걸어 나가는 상이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 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필력거리는 것이 아닌가.

-  위 소설은 아버지가 겪은 과거의 사건과 아들이 겪는 현재의 사건이 병렬적으로 배치되는 구성적 특징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태평양전쟁에서 팔을 잃는 장면과 6.25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2대에 걸친 민족의 수난을 형상화하고 있다.

1. 小説

8. 삽화 형식

‘주제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형식’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수능시험 15번 문항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장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삽화형식

문학작품에서 ‘삽화’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에 삽입된 짝막한 토막이야기를 말한다. 작품 전체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등장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형식을 삽화 형식이라고 한다. 박지원의 소설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등이 삽화형식의 대표적 작품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광문자전

박지원

하루는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흩날렸는데, 여러 아이들이 서로 이끌고 밥을 빌러 나갔다. 한 아이만 병에 걸려 따라가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그 아이가 더욱 추워하더니, 신음 소리마저 아주 구슬퍼졌다.

광문이 그를 매우 불쌍히 여겨, 직접 구걸하러 나가서 범을 얻었다.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였지만, 아이는 벌써 죽어 버렸다. 여러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였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여 광문을 두들기고는 내쫓았다. 광문이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 그 집 개를 놀래 깨웠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 목자, 광문이 이렇게 외쳤다.

"나는 원수를 피해서 온 놈이요. 도둑질할 뜻은 없어요. 영감님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아침나절 종루 시장 바닥에서 밝혀드리겠어요."

그의 말씨가 순박하였으므로, 주인 영감도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새벽에 풀어 주었다. 광문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에, 거적때기를 얻어 가지고 가 버렸다. 주인 영감이 끝내 그를 괴이하게 여겨, 그의 뒤를 밟았다. 마침 여러 거지 아이들이 한 시체를 끌어다가 수포교에 이르더니, 그 시체를 다리 아래에 던지는 것이 보였다. 광문이 다리 아래에 숨었다가 그 시체를 거적때기에 싸더니, 남몰래 지고 갔다. 서문 밖 무덤 사이에 묻고 나서는, 울면서 무슨 말인지 중얼거렸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고서 그 영문을 물었다. 광문이 그제야 앞서 있었던 일과 어제 한 일들을 다 말해 주었다.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을 의롭게 여겨서,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광문에게 옷을 주고는 두텁게 대하였다. 그리고 광문을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살이를 시켰다.

오래 뒤에 부자가 문 밖으로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왔다. 다시 방안에 들어와 자물쇠를 살펴보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의 얼굴빛은 자못 불쾌한 듯하였다가 돌아와 깜짝 놀라더니, 광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얼굴빛이 바뀌더니 그만두었다.

광문은 그 이유를 정말 몰랐다. 날마다 잠자코 일했을 뿐이지, 감히 하직하고 떠나지도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지난번 제가 아저씨께 돈을 꾸러 왔더니,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방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갔었지요, 아마 아저씨께서는 모르고 계셨겠지요."

그제야 부자는 광문에게 매우 부끄러워하면 사과하였다.

"나는 소인이야. 이 일 때문에 점잖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네 그려. 내 이제 자네를 볼 날이 없네."

<중략>

광문이 길에서 싸우는 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벗어 젖히고 함께 싸웠다. 그러다가 무슨 말인가 지껄이면서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금을 그었다. 마치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했다. 그러는 꼴을 보고서 시장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싸우던 자들도 역시 웃다가 모두 흠어져 버리곤 하였다.

- ❶ 위 작품에서는 광문의 인간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광문과 관련된 일화를 세 가지 소개하고 있다. 거지 어린아이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어주는 모습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위한 변명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으며, 싸우는 사람을 말리기 위해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광문이 명(名)에 집착하여 실(實)을 허물어뜨린 당대의 학자들과 비할 수 없는 덕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은 이야기를 삽입하는 방식을 삽화 형식이라 한다.

1. 小説

9. 풍자적 어조

‘사회, 인물의 결함을 비꼬는 어조’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수능시험 56번 문항

※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풍자적 어조를 통해 이야기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ㄴ.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ㄷ.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ㄹ.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풍자적 어조

풍자는 좁은 의미로 개인의 잘못이나 또는 사회 정치적 모순된 현실과 풍조, 인간생활의 결함·불합리·우열·허위 등에 가해지는 기지 넘치는 비판과 조소를 띤 표현 방법 또는 글이나 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넓게는 어리석음의 폭로, 사악함에 대한 징벌을 주축으로 하는 기지, 조롱, 반어 비꼼, 냉소, 조소, 욕설 등의 어조를 포괄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치숙

채만식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이따 저 거시키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 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

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姑母夫) 그 양반…….

며, 말두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찌면 글썸……. 내 원! 신세 간 데 없지요. 자, 십 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 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身分)에는 전과자(前科者)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 가지굴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셋방 구석에서 사시사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따악 감고 드러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 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 막대 내저어야 짚검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鐵貧)인데.

(중략)

대학교 출신이 막별이 노동이라게 꼴 가관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걸 보고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만약 우리 증조 할아버지네 집안이 그렇게 치패를 안 해서 나도 전문 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혹시 우리 아저씨 모양이 됐을지도 모를 테니 차라리 공부 많이 앓고서 이 길로 들어선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인제는 기껏 해 먹을 계란 막별이 노동밖에 없는데, 요 보통 학교 사 년 겨우 다니고서도 시방 앞길이 환히 트인 내게다 대면 고쓰까이[小使]만도 못하지요.

아, 그런데 글썸 막별이 노동을 하고 어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 살아날만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맘보를 먹고 하니, 내 참 기가 막혀! 아아니, 그놈의 것하구는 무슨 대천지원수가 졌단 말인지, 어쨌다고 그걸 끝끝내 하지 못해서 그 발광인고? 그러나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이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이지. 필경은 붙잡혀 가서 징역 사는 놀음?

아마 그놈의 것이 아편하구 꼭 같은가 봐요. 그렇길래 한번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난다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군 그래요. 불한당패던데요. 하릴없이 불한당괘디다.

저어 서양 어디선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몇 놈이 양지쪽에 모여 앉아서 놀고 먹을 궁리를 했더라나요. 우리 집 다이쇼가 다아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 줍디다.

❶ 일본인 상점의 점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나'가 사회주의 운동을 한 후 생활고에 빠진 숙부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정적 인간이 긍정적 인간을 조롱·비판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이중(二重)의 풍자성을 지니고 있다. 이중의 풍자성을 가지기 위해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고 제멋처럼 비판대상을 치속으로 정한 것은 이중의 풍자성을 위한 장치이다.

I. 小説

10. 배경

‘행위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구체적 정황’

■ 수능 답지 보기

1]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위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I 과 이야기II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이야기 I 과 이야기II의 **시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보편적 공감을 유도해 내고 있다.
- ③ 이야기 I 의 특정 인물과 이야기II의 특정 인물만 서로 갈등 관계를 맺도록 하여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인물A가 인물B와 C의 입을 통해서만 인물D와 E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II의 비중이 약화된다.
- ⑤ 인물A가 이야기II 속의 인물D와 E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이 핵심적 의미는 인물D와 E의 실상 규명과 관련되어 있다.

2] 2008학년도 수능시험 48번 문항

※ 위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걸리 집’ 은 ‘민노인’ 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 ② ‘춤판’ 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③ ‘춤판’ 은 ‘구경꾼’ 들이 공연 내용에 반응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 ④ ‘춤판’ 은 ‘민 노인’ 이 신명 나게 북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 ⑤ ‘집’ 은 ‘며느리’ 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 ‘배경’이란?

소설에서 배경은 인물이나 그의 행동, 사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배경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배경은 작가가 만들어 낸 하나의 장치로서,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인물의 정서도 공간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부정적인 일과 관련 있을 때는 배경도 쓸쓸하거나 황량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반면에 긍정적인 일과 관련 있을 때는 배경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묘사된다.

배경은 보통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으로 나뉘지만, 현대 소설에서는 심리적 배경이나 상황적 배경이 더 중요시된다.

■ ‘배경’의 기능

- 1) 인물의 행동, 사건을 사건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 2)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4) 인물의 성격과 태도,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 5)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배경’의 종류

1) 시간적 배경

- ①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이나 시대
- ② 시간에 배경의 중점을 둔 소설은 주로 사건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고, 주인공의 운명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그린다.

2) 공간적 배경

- ① 행동과 사건이 일어나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 ② 공간에 배경의 중점을 둔 소설은 시간 의식이 불분명한 대신 환경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의 성격을 그린다.

예)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개울’

- ‘개울’은 동이와 허 생원 사이의 혈육의 정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

다. 허 생원이 개울에 빠져 동이의 등에 업힘으로써 동이에게 혈육같은 정을 느끼고 동이의 어머니가 있다는 제천으로 가 볼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3) 상황적 배경

- ① 실존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배경
- ② 배경 자체가 주제와 직결되는 모습을 보임
- ③ 등장 인물이 처한 상황, 다른 사물 또는 인물과의 관계 등

예) 2007년 수능, 김유정 <만무방> 16번

[A] 가뜩한데 옆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흥작이었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빛도 다 못 가릴 모양. 예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뭇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들은 우— 물려 들 거니깐.

[B]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뺨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테통스러이 내뺨고는 비틀비틀 눈 저쪽으로 없어진다.

☞ <보기> ㉠ [A]는 [B]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된다.

■ 작품으로 이해 하기(2007년 모의 수능)

[A]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딱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 이 상 <날개> -

41. 일제 강점기에 미쓰코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코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③ ‘회탁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④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공간의 기능 파악

- ① :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에서 ‘나’의 내면적 성찰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 [A]의 끝부분인 ‘나는~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로 보아, ‘나’가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 ‘회탁의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지 않고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곧 그 둘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 ‘나’는 회택의 거리에서의 생활을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곧 ‘나’가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I. 小説

11. 서사

‘서술자에 의해 인물의 행위가 일정한 줄거리를 갖추면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야기되는 양식’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수능 15번 문항 : 김유정 <만무방>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장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2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작자 미상 <조용전>

※ [A]의 서사적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ㄱ. 주인공의 예언 능력을 보여 준다.
- ㄴ.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제시한다.
- ㄷ.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 ㄹ.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서술’과 ‘서사’

‘어떤 서술’이 ‘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할까?

- 1) 어떤 인물의 행동이 있어야하고
- 2) 그런 행동과 정황의 시간적 흐름이 있어야한다
- 3)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있어야한다.

조용전

작자미상

“십 년을 정성 들여 선생을 찾아왔는데 뵈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동자는 가신 곳을 가르쳐 주소서.” 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무꾼이 기러기를 쏘아 맞히지 못하매 제 공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활과 살을 꺾어 버리니 그대도 나무꾼과 같도다. 그대 정성이 부족한 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이 없음을 원망하니 매우 우습도다. 다만 선생께서는 이 산중에 계시건만 산세가 워낙 험하니 그 종적을 어찌 알리오?”

다시 만나절을 기다렸으나 종적이 묘연한지라.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붓을 잡아, 못 보고 가는 뜻을 글로 쓰고 동자를 불러 하직하고 나오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러라.

이때 철관 도사가 산중에 그윽이 앉아 응의 거동을 보더니 벽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의 글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A]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가
만 리 밖에서 찾아오도다.
못에서 용이 날아오르려 하거늘
이 또한 정성이 모자람이라.

도사가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급히 동자를 산 밖에 보내 응을 청하니 응이 동자를 보고 물었다.

“선생이 왔더니까?”

“이제야 오셔서 칭하시나이다.”

응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사립문에 나와 응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다.

“험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였도다.”

하고 동자를 시켜 저녁밥을 재촉하여 주거늘 응이 먹은 후 감사하며 말했다.

“여러 날 굶주린 배에 좋은 밥을 많이 먹으니 향기가 뱃속에 가득한지라 감사하여이다.”

“그대의 먹는 양을 어찌 알아 권하였으리오?”

하고 책 두 권을 주며,

“이 글을 보아라.”

하거늘, 응이 무릎을 꿇고 펼쳐 보니 성현(聖賢)들이 쓴 책이라. 응이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청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삼략』을 주거늘 받아 큰 소리로 읽었다.

도사가 더욱 기특하게 여겨 『천문도』 한 권을 주거늘 받아 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가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뜻이 넓어지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2008년 6월 모의 수능

[A]의 서사적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ㄱ. 주인공의 예언 능력을 보여 준다.
- ㄴ.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제시한다.
- ㄷ.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 ㄹ.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문제의 '서사적 기능'이란 [A]가 이야기 전개상(=서사) 어떠한 역할(=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위 글에서 조웅은 철관 도사를 십 년이나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A]의 시를 남긴다. 이 시에는 먼 곳에서 도사를 만나러 와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조웅의 울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다. 결국 이 시를 보고 철관 도사는 조웅을 만나고, 이에 조웅의 오랜 고민은 해결된다. 따라서 [A]는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제시하고(ㄴ),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ㄹ).

12. 서술방식

‘서술자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식과 관계된 모든 사항’

■ 수능 답지 보기

1 2008학년도 수능 47번 문항 : 최일남 <흐르는 북>

※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성격과 행위의 궤리를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2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 이 상 <날개>

※ 위 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서술방식’과 ‘효과’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과 관계된 모든 사항을 서술방식이라고 한다. 소설에는 서술자의 위치, 시점, 거리, 사건의 전개 방법,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언어 사용상의 특징, 서술자의 태도, 암시, 복선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소설 표현의 중심을 이루는 진술 방식은 서술, 묘사, 대화이며, 서술은 ‘말하기’ 방식에서, 묘사와 대화는 ‘보여 주기’ 방식에서 주로 쓰인다.

① **서술** : 사건의 경과를 나타내어 주로 사건을 진행시키고, 사건 진행의 속도를 조절하며, 플롯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서술만 하면 장면적인 구상성이 결여된다.

② **묘사** : 감각적으로 그리는 글로서 사건의 사실화, 구체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묘사만 강조하면 플롯의 전개가 힘들과 동적인 사건성이 제시되기 어렵게 된다.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서술상의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를 동시에 물어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①작품의 중심 내용과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 ②어떠한 서술 방식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지 확인 ③서술 방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보기> 또는 선택지의 내용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한편 이러한 문제 유형의 선택지를 보면 ‘표현 방식[A]를 통해 효과[B]하고 있다’ 형태로 되어 있다. 대체로 [A]와 [B]는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어 [A]가 지문에 표현되었는지만 확인하면 쉽게 답지를 고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식의 흐름 기법[A]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B]을 드러내고 있다’의 답지를 보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것은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문 내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 표현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 센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포 씨 아니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삼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떡하여 보이고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 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료,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게으르게 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 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몽롱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給)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 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최 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鵝)의 「승방비곡(僧房悲曲)」과 윤백남(尹白南)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 보험 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 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고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는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2007년 6월 모의 수능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 ④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 ⑤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제시된 대목에서 구보는 다방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음악을 감상하다가 ‘사내’의 요청을 받고 마지못해 그와 동석하여 대화를 나눈다. 그러다가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벗이 나타나자 함께 밖으로 나가버린다. 따라서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배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③은 틀린 진술이다.

- ① : 다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보, 사내, 최 군'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세태를 알게 한다. 곧,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 「승방비곡」과 「대도전」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 화재 보험 회사의 권유원이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 ② : 구보의 연상 내용들을 대부분 현재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 구보와 사내, 그리고 최 군 사이의 대화를 보면, 일부는 직접 화법으로, 일부는 간접 화법으로('구포 씨 아니오', '이리 좀 안 오시료.', '이리 좀 앉으시오.'등)
- ⑤ : '구보는 의미몽롱한 웃음을 지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도~',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밖에, 여름 밤, 가벼운~'등에서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1. 小說

13. 일대기 형식

‘등장 인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활동과 업적을 성장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

■ 수능 답지 보기

1 2007년 3월 2학년 전국연합평가 : 작자미상 <옥낭자전>

※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고전 소설의 대표적 특징

- 주제 : ‘권선징악(勸善懲惡)’을 형상화함
- 구성 : ·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을 취함
· 행복한 결말을 보임
- 인물 : 주로 평면적 인물이 등장하여 선악의 대결 구도를 펼침
- 사건 : 도술, 술법 등의 전기적(傳奇的)인 사건이 자주 일어남

- ① 시업에 대해 희생적인 옥랑의 선량함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주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
- ② 옥랑의 탄생부터 시업과의 해로까지를 사건화했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옥랑과 시업의 삶이 행복한 결말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구성상 특징이 잘 나타나는군.
- ④ 시업과 부사 간의 선악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양상이 다른 것 같아.
- ⑤ 특별히 전기적(傳奇的)인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사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

■ ‘일대기 형식’

인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활동과 업적을 성장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한 인물의 전기(傳記)와 같다. 보통 고전 소설 중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 수능에 출제된 <유충렬전>(2006 수능), <임진록>(2007 6월 모의), <전우치전>(2007 9월 모의), <조웅전>(2008 6월 모의) 등에서 일대기 형식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영웅을 소재로 하는 소설은 '영웅의 일대기'라는 일정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충렬전>에 나타난 '영웅의 일대기 구조'

- ①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 : 유충렬은 부귀를 누리는 유심의 아들이다.
- ② 비정상적 잉태 혹은 출생 : 유심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산신에게 빌어서 얻은 외아들이다.
- ③ 범인(凡人)과 다른 탁월한 능력 : 유충렬은 천상 선관(仙官)의 하강이며 비범한 기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 ④ 어려서 기아(棄兒)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름 : 어려서 아버지는 간신 정한담을 규탄하다가 귀양갔고, 간신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다가 어머니를 잃고 도적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
- ⑤ 구출, 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 물에 빠졌으나 바위에 올라 살아나고 남경 장사들이 구출했다. 강 승상의 집에서 화를 피하고 강 소저와 결혼한다. 산으로 몸을 피해 들어가 도성을 만나 무술을 익히고 무기도 얻는다.
- ⑥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힘 : 정한담이 외적과 함께 난을 일으켜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 ⑦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 승리자가 됨 : 정한담을 죽이고 외적을 물리쳐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했다. 부모와 강 승상, 강소저를 다시 만났으며 고귀한 지위에 올라 부귀를 누렸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유충렬전	작자미상
<p>[중간 줄거리]</p> <p>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④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⑤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⑥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p>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씨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번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왈,

“이게 웬 변이냐?”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삐 올라 산호 채찍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왈, 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 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라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얼른 지나 번수 가에 다다르니,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하거늘, 원수 이때를 당하매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에 지를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에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삼십삼천 어린 조화 이때에 다 부리니, 원수 단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리오. 온몸이 불빛 되어 벽력같이 소리하며 왈,

“이놈 정한담야,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리에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江神河伯)도 냇을 잃어 용납지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인들 성할쏘냐. 호통 소리 지나는 곳에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땀던 말 둘러타고 도망하여 가려다가, 형산마 거꾸러져 백사장에 떨어지니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거늘, 구만 청천 구름 속에 번개같이 번쩍 하며 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지니,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 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엎드리니, 이때 천자 백사장에 엎어져서 반생반사 기절하여 누워 있거늘, 원수 붙잡아 앉히고 정신을 진정한 후에 엎드려 주왈,

“⑦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이다.”



❶ 2006년 수능 - 작자 미상, <유충렬전>

일대기 구조로 보면 ①, ②, ③의 내용은 앞에 생략되어 있고, 지문에는 ④, ⑤, ⑥, ⑦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메 모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번 문항

※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군
- ②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 ③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군
- ④ 줄표(-)와 줄임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 ‘요약적 서술’ 파악하기

서술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설적, 추상적, 요약적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시킨다. 소설은 산문문학이지만 그 분량이나 길이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긴 시간에 걸쳐 벌어진 사건을 일일이 서술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를 요약적 서술이라고 한다.

병신과 며저리

이청준

상처를 입은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물이꾼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진 핏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 핏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노루가 피를 쏟고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흰 눈을 선연하게 물들이고 있는 핏빛에 가슴을 섬뜩거리며 마지못해 일행을 쫓고 있었다.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후회가 가슴에서 피어올랐다. <나>는 차라리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산을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저물 때 까지도 일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핏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야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곧 열이 심하게 앓아 누웠기 때문에 다음날 그들이 산을 세 개나 더 넘어가서 결국 그 노루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자리에서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몇 번이고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치곤 했다.

서장은 대강 그런 이야기 였다. 물론 내가 처음에 이 서장을 읽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중간을 읽다가 문득 긴장하여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읽게된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도 나는 그 총소리 하며 노루의 핏자국이나 눈빛 같은 것들이 묘한 조화속에 긴장기 어린 분위기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 ❶ 이 작품은 6,25를 겪으면서 직접적인 상처를 받은 형이 자신의 경험을 소설을 써 나가면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 부분은 동생이 형의 소설을 보면서 ‘서장(序章)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를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小説

15. 의식의 흐름

인물의 무한한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의식과 무의식의 연속적인 흐름

■ 수능 답지 보기

1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최일남<흐르는 북>

※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2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40번 문항 : 이상<날개>

※ 위 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심리학적 용어로, 인간의 의식이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 소설에서 서술의 기법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소설이 구성의 입체성이나 사건의 진전, 인물의 형상화와 같은 서술 방법을 주로 활용한 반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소설에서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기억의 단편, 현재의 지각 내용, 예측되는 사건들이 뒤섞여 나타난다. 일관된 줄거리나 구성에 의도되지 않는 개인의 의식 세계를 통하여 인간존재와 의식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적독백은 의식의 흐름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하지만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수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의 ‘날개’, 오상원의 ‘유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날개

이상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 와 인사하는 외에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 외의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내 아내 닳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인 것만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 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이 33번 지 18 가구 속에서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18 가구에 각기 빌어 들은 송이 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아내가 특히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으로 이 함석지붕 밑 별 안드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든지 찬란하였다. 따

라서 그런 한 떨기 꽃을 지키고---아니 그 꽃에 매어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거북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마음에 들었다. 방안의 기온은 내 체온을 위하여 쾌적하였고, 방안의 침침한 정도가 또한 내 안력을 위하여 쾌적하였다.나는 내 방 이상 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 않았다. 이 이상으로 밝거나 이 이상으로 아늑한 방은 원하지 않았다.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 늘 내 방에 감사하였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을 그저 까닭없이 편둥편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쳐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 ❶ 위 작품에서는 사건이 논리적인 전개에 의한다기 보다는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므로 사건 자체도 뚜렷하지 않고 사건들 사이의 연계성을 찾기도 힘들다. 이러한 기법은 나가 지닌 자의식의 혼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즉 서술자가 자기가 겪은 일, 그 일을 통해 떠오르는 과거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떠오르는 그대로 줄줄 써 내려가는 것이다.

1. 小說

16. 인물의 유형

소설 속 사건과 행동의 주체인 인물을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

1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52번 문항 ; 이문열<금시조>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인물의 유형’이란?

인물은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사건과 행동의 주체가 된다. 단순한 외면뿐 아니라 성격이라는 내면적 속성까지 포함된다. 특히, 근대소설 이후로 성격의 창조, 심리의 묘사 등 인간의 내면성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인물은 소설의 중심 요소가 되었다.

<인물의 유형>

역할에 따라	주동인물	소설의 주인공으로 사건과 행동의 주체적 인물
	반동인물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의지나 행동에 맞서 갈등하는 인물
중요도에 따라	주요인물 (중심인물)	주인공이나 그에 버금가는 중심적 인물,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짐
	주변인물	주인공을 돕거나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 주로 평면적으로 그려짐
특성에 따라	전형적 인물	어떤 사회 계층이나 직업, 세대를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인물, 유형적 인물이라고도 함
	개성적 인물	자기만의 뚜렷한 개성을 지닌 인물
성격변화양상에 따라	평면적 인물	작품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인물, 정적 인물이라고도 함
	입체적 인물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인물, 동적 인물이라고도 함

<인물제시방법>

구분	직접적인 제시 방법	간접적인 제시 방법
개념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을 직접 요약, 설명하는 방법	인물의 행동, 대화를 통해 장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판단하게 하는 방법
의미	설명적→말하기(telling)	묘사적→보여주기(showing)
방법	성격이나 심리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과 설명	대화와 행동묘사를 통한 간접적인 표현 방법
단점	추상적인 설명으로 흐르기 쉬움	작가의 견해를 나타내기에 불편함
예시	너무 귀여움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버릇이 없고 어리광을 부리며,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많이 한다 나도향<병어리 삼룡이>	“뱃섬좁 치위 달라우요”/“남 줄음 오는데, 남자 치우시관”/“내가 치우나요?”/“이십 년이나 밥 쳐먹고 그걸 못치위” 김동인<감자>

금시조

이문열

그런데 그 가을의 어느날이었다. 이미 가끔씩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던 석담선생은 그날도 병석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종이와 붓을 찾았다. 그것도 그 무렵에는 거의 쓰지 않던 대필(大筆)과 전지(全紙)였다. 벌써 몇 달째 종이와 붓을 가까이 않던 고죽은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모를 심화를 느끼며 먹을 갈기 바쁘게 스승 곁을 물러나고 말았다. 어딘가 모르게 스승의 과장된 집착에는 제자의 방향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뜰을 서성이는 사이에 그는 문득 늙은 스승의 하는 양이 궁금해졌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선생은 붓을 연진(硯唇)에 기대 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萬毫齊力 녀 자 중에서 앞의 석 자만이 쓰여져 있었다.

"소재(蘇齋=翁方綱)는 일흔 여덟에 참깨 위에 <天下太平> 녀 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일흔도 차지 않았는데 이 녀 자 <萬毫齊力>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선생의 얼굴에는 자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스승의 그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이 노닐듯,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어떤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찌기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던 말이나?"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는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는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낮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지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을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안으며 엎드렸다. 노한 석담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던진 것이다.

위 작품은 대화를 통해 두 주인공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제자인 '고죽'과 스승인 '석담'의 첨예한 갈등을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인물이 상대방의 의견을 공박하며 예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고죽과 석담 두 인물의 상반되는 예술관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구체적인 상태’

1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번 문항

※ ㉠ ~ ㉤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 :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 :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 ⑤ ㉤ :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2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항

※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과거의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다.
- ② ㉡ :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다.
- ③ ㉢ : 관련된 사안이 예민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 ④ ㉣ : 상황을 들어 당시 행위를 옹호하려 한다.
- ⑤ ㉤ :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실망하고 있다.

■ ‘인물의 태도·심리’ 파악하기

인물의 태도·심리 또는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직접적인 서술, 또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인물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살핀 후,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행동과 대화, 다른 인물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만세전

염상섭

스물두셋쯤 된 책상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 앓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여야 다만 심심 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 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지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 두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짜는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은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리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나도 열 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 윗 글의 ‘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③ 자기 정체성에 대해 책상물림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 ④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이상과 가족들의 기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나’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과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고, 별 관련이 없이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품은 삶의 목표들과 현실과의 유리되어 있음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⑤

‘한 언어만이 지니는 특유의 습관화된 언어형태’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② ㉡ :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 ③ ㉢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 ④ ㉣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 ⑤ ㉣ :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려낸다.

2]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관용적(관습적) 표현’이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각 단어들의 개별적인 의미만으로는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관용적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관용구 :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관용적으로 쓰이어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발이 넓다(교제의 범위가 넓다), ‘뺨대를 올리다(몹시 화를 내다) 등이 있다.
2. 속담(俗談) : 민중의 지혜가 담겨 널리 구전되는 민간의 격언이다.

3. 격언(格言) :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에서 이루어져 인생에 대한 교훈과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로 주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4. 고사성어 : 어떤 유래에 의해 만들어진 어구이다. 예를 들어 '조삼모사', '배수진', '염화미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관용적 표현들은 단어들의 원래 의미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특수한 의미를 지니며, 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둘 이상의 단어가 한 덩어리로 굳어져 사용되므로, 표현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적벽가

[아니리] 탄식하던 끝에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웃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내 웃는 게 다름 아니라 주유(周瑜)는 피가 없고 공명(孔明)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노라.”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리 허리 곱의 팔, 녹포엄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는다 모르는다? 조조는 달지 말고 창 받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등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닫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덩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덩기령 베고, 백송골이 펴 찌듯, 두꺼비 파리 찌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 행 쳐들어갈 제, 피 흘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 1 위 글에는 쫓기고 있던 조조를 공격하기 위해 등장하는 조자룡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형산백옥’은 중국 형산에서 나는 백옥이라는 뜻으로, 보물로 전해 오는 흰 옥돌을 이르는 말인데, 조자룡의 빼어난 얼굴을 비유하기 위해 활용된 말이다. 그리고 ‘소상강’은 중국의 소수와 상강이

합쳐지는 지점으로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곳으로 일컬어 왔다. '소상강'의 맑은 '물결'을 활용하여 조자룡의 눈빛을 비유하고 있다. 이는 '형산 백옥'과 '소상강 물결'을 활용하여 조자룡의 외양을 묘사한 관용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리고 '백송골이 꿩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도 관용적 표현에 해당한다.

19. 희화화(戲畵化)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

■ 수능 답지 보기(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보기>에 비추어서 (다)의 ‘새타령’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새타령’은 ■ 벽가 ■ 서도 절창으로 꼽힌다. 새 모습 묘사와 새 소리 표현에 생동감이 넘쳐, 이름난 광대가 이 대목을 부르면 새가 날아들 정도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새의 울음을 표현한 말소리들이 서사적 상황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전쟁 상황에 얽힌 의미를 표출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에 이어지는 ‘귀축도 귀축도’라는 울음소리는 ‘귀축’의 뜻인 ‘고국으로 돌아감’과 연결되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흥년새가 ‘소텡 소텡’ 하고 우는 것은 ‘소댕(솔뚜껍)’이나 ‘솔이 텡빈 것’과 연결되어,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② 삐죽새가 ‘입삐죽 입삐죽’ 하고 우는 것은 ‘삐죽대다’와 연결되어, 대군을 잃고 한심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
- ③ ‘찌꼬리 수리루리루’라는 울음소리는 ‘찌’라는 말과 연결되어, 도망갈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까마귀가 ‘고리각 까옥’ 하고 우는 것은 까마귀가 ‘효조(孝鳥)’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쭉국 쭉쭉국’이라는 울음소리는 ‘쭉’의 약효와 연결되어,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군.

■ ‘희화화(戲畵化)’란?

희화화(戲畵化)는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때를 말한다. 「치숙」의 서술자 ‘나’는 일본인에게 아첨하여 개인의 영달을 꾀하려는 인물로 독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인물이므로 희화화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봉산탈춤」의 양반과장에서 ‘말뚝이’의 조롱을 받는 ‘생원’과 ‘서방’도 희화화된 인물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봄봄

김유정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숨으로 손수 지져 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을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 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뚜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라사라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 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 아! 이놈아! 놈라,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술개미에 췌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놈라, 놈, 놈, 놈, 놈."

그래도 안 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질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2하고, 귀를 뒤로 잡아댕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덩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 하게 해 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 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 ❶ 위 글에서 서술자인 '나'는 사경 한 푼 없는 데릴사위 노릇을 3년 7개월을 하고도 불평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인물로 희화화되어 있다. 그리고 장인도 품삯을 아끼기 위해 데릴사위 명목으로 사경 안 주는 머슴을 부려먹는 인물로 희화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둔하고 때로는 욕심이 지나치긴 해도 부정적으로 묘사되거나 독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끼지는 않는데, 그것은 바로 인물들을 희화화함으로써 자아내는 독특한 분위기 때문이다.

꿈속 이야기 전개 과정 중 다시 꿈을 꾸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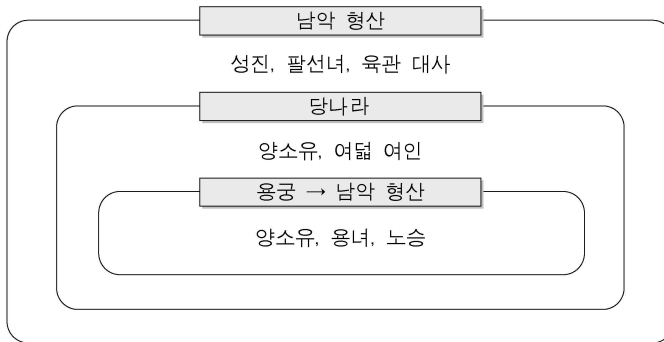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6월 평가원모의고사 25번 문항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구운몽'은 남악 형산 육관 대사의 제자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여덟 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시 꿈을 꾸어 용궁으로 들어가는 '꿈속 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이 현실 층위에 한정되어 실감이 나는군.
- ② '꿈속 꿈'의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군.
- ③ 꿈과 '꿈속 꿈'을 통하여 모든 현실적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군.
- ④ '꿈속 꿈'의 공간은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군.
- ⑤ 꿈과 '꿈속 꿈'의 공간이 닫혀 있어서 안정감 있는 공간 의식을 갖게 하는군.

■ ‘꿈속 꿈’의 구조

현실	꿈	현실
세속의 부귀공명에 대한 번뇌	부귀공명을 누림→인생무상	깨달음을 얻고 불교에 귀의함
불교	유교	불교
천상계	인간계	천상계

구운몽은 위 표와 같이 현실→꿈→현실의 환몽구조로 되어 있어 현실(천상계)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인간계)속에서 또 꿈(천상계)을 꾸는 ‘몽중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구운몽

왕이 수중 종족을 모으고 큰 잔치를 차려 원수가 싸움 이기고 용녀가 집에 돌아옴을 축하할새, 술이 취하매 온갖 음악을 내니 풍류 질탕하여 인간 세상과 다르더라.

원수 보니 앞뜰 좌우에 일천 장사 칼과 창을 들고 북 치고 나오고 여섯 줄의 미녀가 비단옷을 입고 춤추니 웅장하고 화려하여 자못 봄 직하더라. 용왕더러 묻되,

“이 춤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배라. 아지 못게라, 이 무슨 곡조 니이까.”

용왕 왈,

“이 곡조는 용궁에도 옛날에는 없더니 과인의 맏딸이 경하강(涇河江)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욕을 당하매 유의(柳毅)*가 편지로 전하거늘, 전당강(錢塘江)에 사는 아우가 경하강에 가 싸움해 이기고 여아를 데려오니 궁중 사람이 글을 만들어 전당 파진악(錢塘破陣樂)과 귀주 환궁악(貴主還宮樂)이라 하여 이따금 궁중 잔치에 쓰더니, 이제 원수께서 남해 태자를 이기고 부녀 서로 모임이 전일과 방불할새 이 곡조를 내고 이름을 고쳐 원수 파진악(元帥破陣樂)이라 하나이다.”

원수 크게 기뻐 왕께 사뢰되,

“유 선생이 어디 있나니이까. 가히 서로 볼 수 있으리까.”

용왕 왈,

“유익은 지금 영주의 신선 벼슬을 맡고 있으니 마음대로 오지 못하리이다.”

술잔이 아홉 번 도니 원수 왈,

“군중(軍中)에 일이 많으니 한가히 머물지 못하리로소이다.”

용녀와 더불어 훗날을 기약하더라.

용왕이 원수를 궤문 밖에 가 보내더니 원수 문득 눈을 들어 보니 한 뼘 높고 빼어나 다섯 봉이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더러 묻되,

“이 뼘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니이까. 이 양소유 천하를 두루 다녔으되 오직 화산(華山)과 이 뼘을 못 보았나이다.”

용왕이 답하여 이르기를,

“원수 이 뼘을 모르시리이다. 이 곧 남악(南嶽) 형산(衡山)이니이다.”

원수 왈,

“어이 하면 저 뼘을 보리이까.”

용왕 왈,

“날이 아직 늦지 아녘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갈 수 있으리이다.”

원수 수레에 오르니 금방 뼘 아래 이르렀더라. 원수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 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겨뤄 흐르는 절경이지만, 불 겨를이 없는지라, 한탄하여 가로되,

“어느 날 공적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 들리거늘 절 문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좇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으되 그 규모가 극히 장려하고 노승이 당 위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빼어나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와 원수를 맞으며 왈,

“산 속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여 멀리서 맞지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 이번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으니, 불전 위에 올라가 예배하소서.”

원수 분향 예배하고 불전 아래로 내리더니 문득 실족하여 엎어져 놀라 깨달으니 몸은 영중(營中)의 높은 의자에 기대고 있고 날은 이미 밝았더라.

I 성진이 인간세계의 부귀영화를 동경하는 것을 스승이 알고 인간세상에 양소유로 태어나 허망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게 한다. 인간세계에 태어나는 꿈속에서 다시 용궁에 가서 용왕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남악형산에가 육관대사를 만나는 꿈을 꾸는 장면이다.(스승인 육관대사를 알아보는 못함)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는 몽중몽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운율적 요소가 있는 산문 문체’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44번 문항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율문투를 사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율문투

율문(律文)에서 사용되던 율격의 흔적이 남아 있어 낭독하기에 편한 산문 문투를 율문투라 한다. 판소리계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문투이다. 판소리의 운율적 요소가 소설에 그대로 남아 율문투의 문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 외에도 박씨전, 김학공전, 홍길동전 등에서도 율문투를 찾아볼 수 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네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이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님을 생시에 보단말까.”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절하며,

“애고 이게 뉘기시오. 아매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기룬 님을 이리 수이 만날손가. 이제 죽어 한이 업네. 엇지 그리 무정한가. 박명(薄命)하다 내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나 님 기루어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 일느니 이내 신세 이리되야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랴 와겨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님의 형상(形狀) 자시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라.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룬 마음 업소마는 서방님이 지경이 웬 일이요.”

“오냐 춘향아 서러 마라. 인명(人命) 재천(在天)인데 설만들 죽을소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漢陽城) 서방님을 칠년대한(七年大旱) 가문날에 갈민대우(渴民待雨) 기두린들 날과 같이 자진턴가. 심근 냇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할 일 업시 되얏구나. 어마 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업게 하옵소서. 나 입던 비단 장옷 봉장(鳳幟) 안에 들었스니 그 옷 내여 팔아다가 한산세저(韓山細苧) 바꾸어서 물색 곱게 도포(道袍) 짓고, 백방사주(白紡絲紬) 진초매를 되는대로 팔아다가 갓망건 신발 사 디리고, 절병 천은 비내 밀화장도(蜜花粧刀) 옥지환(玉指環)이 함 속에 들었스니 그것도 팔아다가 한삼 고의(汗衫袴衣) 불초(不肖)찬케 하여 주오. 금명간(今明間) 죽을 년이 세간 두어 무엇할까, 용장(龍幟) 봉장 빼다지를 되는대로 팔아다가 별반(別飯) 진지 대접하오.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업다 마르시고 날 본닷이 섬기소서.”

- ❶ 위 글은 춘향이가 거지 차림으로 찾아온 이몽룡을 만나는 부분이다. 이 몽룡을 만난 반가움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4음보의 운율이 느껴지는 율문투로 말하고 있다.

‘향유층, 미적 쾌감’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할 때,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고난의 해결은 초현실적이다. 당시 독자들이 숙향과 같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숙향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던 당시 독자들은 숙향의 패배와 죽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숙향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월적 존재를 설정한 까닭이다. 요컨대, 숙향의 고난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난에 공감하면서 비감(悲感)을, 숙향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 ‘숙향전’에 여러 고난이 반복되는 것은 향유층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소설의 향유층 (독자층)’

한문 소설의 독자는 물론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양반 계층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문 소설의 경우는 독자 계층이 다양하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한 평민이나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들 중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설 독자층의 확대는 17세기 이후 신분 질서가 동요되면서 양반 계층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이런 현상은 소설의 융성에 절대적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규중에 묻혀 지내야 하는 부녀자들은 가장 왕성한 소설 독자였다. 조선조에 여성들이 소설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음은 당시의 여러 기록을 통하여 추론이 가능하다. 일례로 김만중은 모친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구운몽을 지어드렸다. 또 이때는 소설 읽기가 여성 교육의 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한글을 해독하는 여성 독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설 공급 역시 여성 취향으로 변하게 되었다. 당시에 나온 소설을 보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 많다. 여걸 소설에서 女化爲男하여 出將入相하는 여성들의 영웅적 행위는 여성 독자층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궁궐의 여성도 소설을 즐겨 읽었는데,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소설이 지어지기도 했다. 고전 소설 중에 애정 문제나 가정 문제를 다룬 소설이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들 부녀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미적 쾌감'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대할 때 느끼는 독자의 즐거운 감정. 독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스토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미를 통한 긴장 이완을 경험하게 된다.

1)문학의 기능

- ① 교시적(敎示的) 기능 : 문학은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인생의 진실을 보여 주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 ② 쾌락적(快樂的) 기능 : 문학은 독자에게 고차원적인 정신적 즐거움이나 미적 쾌감을 준다.
- ③ 종합적(綜合的) 기능 : 문학은 독자에게 고차원적인 정신적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가르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종합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임진록

작자 미상

왜왕이 대접하야 옥새를 글너 목의 글고 용표를 버셔 목의 매고
 손슈 사죄 왈
 “실령하신 생불은 잔명을 보존케 하옵쇼셔” 하며 애걸하거늘, 그
 제야 사명당이 비를 그치게 하고 왈,
 “이제 또다시 반심을 두어 조선을 흥거홀소냐.”
 “츠후는 그런 범남한 뜻을 두지 아니하오리다.” 하고 백배 사죄
 왈,
 “잔명을 살여 주옵시면 천추 만대라도 은혜를 감사오리다.”
 스명당이 허락하고
 “매년 인피 삼백 장과 동철 삼천 근과 목단 삼천 근과 왜물 삼
 천 근을 조공하라.” 하니 왜왕이 그대로 항서를 써 올리거늘, 스
 명당왈
 “우리 조선의 한 도의 생불이 일천씩 계시니, 다시 반심을 두면
 팔천 생불이 일시에 왜국을 공지 만들 거시니 부디 조심하라.”
 왜왕이 백배 돈슈하더라.

❶ <임진록>이 창작된 시기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지배층의 무능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던 시기였다. 위의 이야기는 사명당이 여러 가지 시련을 도술로 물리치고 왜왕의 항복을 받는 부분이다. 비록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현실에서 패배 의식에 대한 정신적 보상과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

‘전기수, 장회 나누기 방법, 요전법’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9월 모의고사

※ <보기>의 ‘전기수’처럼 위 글을 읽다가 멈추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 <보 기> —

전기수(傳奇叟)는 ‘숙향전’, ‘소대성전’ 등과 같은 국문소설을 장소를 바꿔가며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들은 책을 읽어 가다가 사람들이 꼭 더 듣고 싶어 할 만한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읽기를 멈추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邀錢法)이다. 전기수의 이런 수법은, 한 장회를 끝낼 때 새로운 사건의 첫 부분만 짧게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고소설의 장회 나누기 방법과 같은 원리이다.

■ 고전 소설의 유통

- 1) 전기수 : 소설의 상업적 전달의 한 형태로, 고전 소설을 직업적으로 낭독하던 사람
- 2) 요전법 : 전기수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소설을 낭독하다가 가장 흥미로운 대목에서 소설을 멈추면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돈을 던지는 것
- 3) 고소설의 장회(章回) 나누기
: 항상 매 회마다 끝을 "그러면 이 결말은 어떻게 될는지 다음회의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오"라는 의미의 말로 매듭짓고, 다음 장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형식의 발생은 송대(宋代)에 연단(演壇)에서 강석사(講釋師)들이 장편의 강담을 몇 회로 나누어 구연(口演)할 때에 이용한 기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소설 형식은 원(元)·명(明) 시대에 《삼국지연의》, 《수호지》, 《서유

기》 등에 의하여 완성되었고, 청대(清代)의 《유림외사(儒林外史)》, 《홍루몽》 등을 거쳐, 관료비판을 주제로 한 '견책소설(譴責小說)'에 이르기까지 답습되어 왔다.

4) 고전 소설의 유통과정

필사	· 개별적 필사, 샀을 받고 필사
↓	
세책	·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한계성
↓	
방각본	· 상인의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 · 지역적 한계극복. 단편소설들을 대량 생산 · 17~19세기 국문소설의 상업적 유통에 있어 주류 형성
↓	
구활자본 (딱지본)	· 본격적인 기계 활자로 인쇄 ⇒ 생산비절감 ⇒ 독자대중화 ⇒ 더욱더 상업적 영향을 받음

‘이야기(또는 사건)의 진행 속도, 빠르기’

■ 수능 답지 보기

1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번

※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대성 : 나는 ■대성전■ 주인공이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영웅이 되었지. 그런데 내가 영웅이 된 과정은 나와 다르더군.

조 응 :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간신의 박해를 받아 고생을 했고, 그 간신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영웅이 되었지. 태어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가 지 줄곧 적과 싸움을 한 셈이야.

소대성 : 나도 부모를 잃어 고생한 적은 있었어. 하지만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련의 과정이 필요 없었어.

조 응 : 그렇구나. 나는 너와 달리 스승을 찾아야 했고, 참으로 긴 수련의 과정이 필요했어.

소대성 : 그래서 너의 이야기에는 나의 이야기와 다른 ㉠ 특징이 있구나.

- ① 등장인물의 수를 늘려 설정된 사건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 ② 주인공의 영웅성과 함께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을 부각시켜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③ 스승의 존재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내어 소설의 교훈성을 부각시킨다.
- ④ 주인공의 시련을 좀 더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한편 주제를 심화시킨다.
- ⑤ 선천적으로 초월적 힘이 주어진 경우보다 고난 극복에 대한 주인공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

■ ‘서술 속도’란?

소설에서 서술 속도(tempo)란 이야기의 진행 속도를 의미한다.

■ ‘서술(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

- 1) 말하기(Telling)의 방식이 사용된 경우
- 2)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경우 - 압축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예> 가르침은 오직 그 뿐이었다.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드러내 놓고 연마할 수 있다는 것과 이틀에 한번씩 운곡선생에게 들러 한학을 배우게 된 정도였을까. 그러다가 삼 년이 지난 후에 딱 한마디 덧붙였다
 (이문열 ‘금시조’)

■ ‘서술(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

- 1) 보여주기(Showing)의 방식이 사용된 경우
- 2) 사건이 장면적으로 제시된 경우 - 대화와 행동을 통해 제시되는 경우
 <예>
 청년은 무릎을 굽혀 바깥에서 툽밤 한줌을 집어든다. 그리고 그것을 난로의 불빛 속에 가만히 뿌려놓아 본다. 호르르르. 땀비꽃이 피어나듯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다가 이내 사그라져 들고 만다. (임철우 ‘사평역’)

■ 작품으로 이해하기(2008년 6월 모의수능)

A 세월이 물같이 흘러 웅의 나이 15세라. 골격이 웅장하고 기운이 뛰어나더라. 하루는 웅이 모친께 청했다.

B “소자 지금 나이 15세요, 이곳이 선경(仙境)인지라 가히 살만한 곳이지만, 대장부 세상에 처하매 한곳에서 늙을 것이 아니옵니다. 신선도 두루 돌아다녀 박람(博覽)*한다 하거늘 소자가 슬하를 잠시 떠나 산 밖에 나가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하나이다.”

왕 부인이 매우 놀라며 말했다.

“천리 타향에 너는 나만 믿고 나는 너만 믿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늘 네 일시인들 내 슬하를 떠나며, 내 어찌 너를 내어 보내고 일시인들 잊을쏘냐. 네 어디를 갈 양이면 한가지로 할 것이라. 차후는 그런 마음 두지 말라. 매우 놀랍도다.”**[B]**

(중략)

이렇게 설득하니 부인이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다.

“만일 존사의 말씀과 같지 못하면 어찌하리오?”

“공자의 평생 영욕(榮辱)을 다 알았사오니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부인이 마지못해 허락하니 대사와 웅이 기뻐 이튿날 길을 떠났다.

(중략)

“십 년을 정성 들여 선생을 찾아왔는데 뵈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동자는 가신 곳을 가르쳐 주소서.”

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무꾼이 기러기를 쏘아 맞히지 못하매 제 공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활과 살을 꺾어 버리니 그대도 나무꾼과 같도다. 그대 정성이 부족한 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이 없음을 원망하니 매우 우습도다. 다만 선생께서는 이 산중에 계시건만 산세가 워낙 험하니 그 종적을 어찌 알리오?”

다시 만나절을 기다렸으나 종적이 묘연한지라.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붓을 잡아, 못 보고 가는 뜻을 글로 쓰고 동자를 불러 하직하고 나오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러라.

이때 철관 도사가 산중에 그옥이 앉아 웅의 거동을 보더니 벽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의 글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가

만 리 밖에서 찾아오도다.

못에서 웅이 날아오르려 하거늘

이 또한 정성이 모자람이라.

도사가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급히 동자를 산 밖에 보내 웅을 칭하니 웅이 동자를 보고 물었다.

“선생이 왔더니까?”

“이제야 오셔서 칭하시나이다.”

웅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사립문에 나와 웅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다.

“험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였도다.”

하고 동자를 시켜 저녁밥을 재촉하여 주거늘 웅이 먹은 후 감사하며 말했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대성 : 나는 ■대성전■ 주인공이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영웅이 되었지. 그런데 내가 영웅이 된 과정은 나와 다르더군.

조 응 :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간신의 박해를 받아 고생을 했고, 그 간신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영웅이 되었지. 태어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까지 즐긴 적과 싸움을 한 셈이야.

소대성 : 나도 부모를 잃어 고생한 적은 있었어. 하지만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련의 과정이 필요 없었어.

조 응 : 그렇구나. 나는 너와 달리 스승을 찾아야 했고, 참으로 긴 수련의 과정이 필요했어.

소대성 : 그래서 너의 이야기에는 나의 이야기와 다른 ㉠ 특징이 있구나.

- ① 등장인물의 수를 늘려 설정된 사건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 ② 주인공의 영웅성과 함께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을 부각시켜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③ 스승의 존재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내어 소설의 교훈성을 부각시킨다.
- ④ 주인공의 시련을 좀 더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한편 주제를 심화시킨다.
- ⑤ 선천적으로 초월적 힘이 주어진 경우보다 고난 극복에 대한 주인공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

☞ ④ 시련이 보다 ‘단계적으로 설정’되는데,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A부분은 말하기 방식을 통해 제시되어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 반면, **B**부분은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 제시되어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1. 小説

25. 사실성(寫實性)

‘있었던 사건의 실제 모습,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려고 하는 경향을 띤 특성’

■ 수능 답지 보기

1 2008학년도 수능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③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작자미상 <임진록>

※ 위 글과 <보기>는 같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글과 <보기>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의병에 뽑혀서 동행하게 되었다. 최척은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소장(訴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자, 의병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에 대해 말하느냐? 임금께서도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서 풀숲을 방황하고 계시니, 이러한 때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의병장은 이렇게 꾸짖으며 끝내 최척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옥영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 ① 위 글은 <보기>에 비해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위 글은 <보기>에 비해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③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 ④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⑤ <보기>는 위 글에 비해 개인의 애환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 ‘사실성’

-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려고 하는 경향을 띤 특성

* 사실성을 부여하는 방법

- 1)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제시함
- 2) 실존 인물의 일화를 제시함
- 3)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드러냄(황당 무계한 사건의 개입 없이)
- 4) 사건의 우연정보보다 사건의 필연성을 통해 제시
- 5)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줌

■ 작품으로 이해하기(07.6월 모의수능)

나는 조선 장수 김덕령이라. 왜적의 씨를 없이하려니와 천운이 불행하여 내 몸이 상중에 있기로 너희를 이제까지 살렸도다. 무지한 왜적은 천위를 모르고 외람되이 조선을 침범하였으니 목숨을 아끼거든 바빠 살아 가라. 너의 명이 내 수중에 달렸으니 빨리 돌아가라.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일 오시(午時)에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재주를 구경하되 백지를 오려 너희 군졸 머리 위에 날날이 붙이고 기다리라.”

하고, 마침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대로하여 수문장을 베어 장대에 달고 왈,

“문을 어찌 지켜 요망한 놈이 임의로 출입하는가.”

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백지를 오려 머리 위에 날날이 붙여라. 내일 오시에 요망한 놈이 반드시 올 것이니, 동정을 살피되 일시에 함께 총과 활을 쏘아라.”

하고, 이튿날 오시가 되도록 종적이 없더니, 오시 후에 북쪽으로부터 일점 흑운이 일어나며 광풍이 대작하고 시석(矢石)*이 날리며 큰 나무가 부러지며 천지가 뒤넘는 듯하더니 공중에서 한 소년이 상복을 입은 채 포선(布扇)*을 들고 오른손으로 억만 군중 백화 밧이 된 백지를 거두어 쥐고 천둥같이 호령 왈,

“너희는 내 재주를 보라. 내 몸이 상중이 아니면 너희 장졸의 머리를 이 종이같이 경각에 거두고자 하나니, 너희가 목숨을 아끼거든 빨리 퇴병하라. 만일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내 포선으로 너희를 씨도 없이하리라.”

하고 간데없거늘,

※ 위 글과 <보기>는 같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글과 <보기>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의병에 뽑혀서 동행하게 되었다. 최척은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소장(訴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자, 의병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에 대해 말하느냐? 임금께서도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서 풀숲을 방황하고 계시니, 이러한 때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의병장은 이렇게 꾸짖으며 끝내 최척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옥영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 ① 위 글은 <보기>에 비해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위 글은 <보기>에 비해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③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 ④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⑤ <보기>는 위 글에 비해 개인의 애환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 **위 글의 밑줄 친 부분은** 등장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전기적(傳奇的)인 내용**인데 비해 **<보기>**는 황당무계하거나 기이(奇異)한 요소 없이 **등장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26. 현학적 표현

‘학식이 있음을 뽐내는 표현’

■ 수능 답지 보기

1 2009학년도 수능시험 20번 문항

※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 ④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 현학적 표현

현학적 태도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과 학식을 뽐내려는 태도를 일컫는다. 불필요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필요 이상으로 난해한 추상적 개념어 등이 현학적 표현의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대 소설 작품 속에서 현학적 표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만 여러 작품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금시조(金翅鳥)

이문열

서안(書案)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은 이제는 다만 지난 영광의 노을로서만 파악되는 어떤 유연한 세계를 넘나들 때나 신기(神氣)가 번득이는 눈길로 태풍처럼 대필(大筆)을 휘몰아

갈 때, 혹은 뒤결 한 그루의 해당화 그늘 아래서 탈속한 기품으로 난(蘭)을 뜨고 거문고를 어를 때는 그대로 경건한 삶의 한 사표(師表)로 보이다가도, 그 자신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반 년도 안 돼 굶어죽은 송장을 쳐야 할 것 같은 살림이나, 몇몇 늙은이와 이제는 열 손가락 안으로 줄어든 문인들을 빼면 일 년 가야 찾아 주는 이 없는 퇴락한 고가나, 고된 들일에서 돌아오는 그를 맞는 석담선생의 무력한 눈길을 대할 때면 그것이야말로 반드시 벗어나야 할 무슨 저주로운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결국 고죽의 삶을 지배한 것은 사모와 동경 쪽이었다. 새로운 세계로의 강렬한 유혹을 억누르고 신학문을 포기했을 때 이미 예측됐던 것처럼 그는 어느새 자신도 모를 열정으로 석담선생을 흉내내고 있었다. 문인들이 잇고 간 선생의 체본(體本), 선생이 버린 서화의 파지(破紙)나 동도(同道)들과 주고받다 흘린 문인화 같은 것들이 그의 주된 체본이었지만 때로는 대담하게 문갑에서 빼낼 때도 있었다.

처음 한동안 그가 썼던 지필(紙筆)은 후년에 이르러 회상할 때조차 가슴에 썰렁한 바람이 일게 하는 것들이었다. 작은 글씨는 스스로 만든 사판(沙板)이나 분판(粉板)에 선생의 문인들이 쓰다 버린 몽당붓을 주워서 익혔고 큰 글씨는 남의 상석(床石)에 개꼬리 빗자루로 쓴 후 물로 씻어내리곤 했다. 그가 맨 처음 자신의 붓과 종이를 가져 본 것은 선생 몰래 붓방과 지물포에 갈비(술잎) 한 짐씩을 해다 준 후였다…….

석담선생은 나중에 그걸 고죽의 아망이라고 나무랐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련을 하면서도 그가 끝내 석담선생에게 스스로 입문을 요청하기는커녕 자신의 뜨거운 소망을 비치지조차 않은 것은 그들의 관계로 보아 잘 믿기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의 예술적인 자존심, 어떤 종류의 위대한 영혼에게서 발견되는 본능적인 오만이나 아니었던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석담선생 내외가 나란히 집을 비워 그 홀로 빈 집을 지키게 된 그는 선생의 서실을 치우다가 문득 야릇한 충동을 느꼈다. 그때까지의 연마를 한눈으로 뚜렷이 보고 싶다는 충동이었다. 마침 석담선생이 간 곳은 백리 길이 넘는 어떤 지방 유림(儒林)의 시회(詩會)여서 그 날 안으로는 돌아올 수 없었다.

그는 곧 서탁을 펼치고 선생의 단계석(端溪石)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선생의 법도에 따라 연진(硯脣)에 먹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묵지(墨池)가 차자 선생이 필낭에 수습하고 남긴 붓과 귀한 화선지를 꺼냈다.

먼저 그는 해서(楷書)로 안체(顔體) 쌍학명(雙鶴銘)을 임사(臨寫)했다. 추사(秋史)가 예천명(醴泉銘=구양순이 쓴 九成宮醴泉銘)을 정서(正書)를 익히는 데에 으뜸으로 치던 것처럼 석담선생이 문인(門人)들에게 가장 힘써 익히기를 권하던 것인데, 종지와 붓이 익숙해짐과 동시에 체본과 흡사한 자획이 나왔다. 다음도 역시 안체 근례비(勤禮碑)……차츰 그는 고심참담하면서도 황홀한 경지로 빠져 들었다.

그러다가 그가 들연한 호통소리에 정신을 차린 것은 그무렵 들어 익히기 시작한 난정서(蘭亭序) 첫머리 <永和九年歲在癸丑……>을 막 끝낸 직후였다.

"이놈,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놀란 눈을 들어 보니 어느새 어둑해진 방 안에 석담선생이 우뚝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호통소리는 높았지만 얼굴에는 노기보다 까닭 모를 수심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 곁에는 시(詩), 화(畵), 위기(圍棋), 점복(占卜), 의약(醫藥) 등 일곱 가지에 두루 능하다 해서 칠능군자(七能君子)란 별호를 가진 운곡(雲谷) 최선생이 약간 기괴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 ❶ 위 작품 ‘금시조’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문학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다. 위 작품은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읽었을 때 작가가 자신의 교양과 학식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학적 표현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에 따라 달리 평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 고등학생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현학적 표현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화 기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 후
 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으스
 슥흐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흐렴은.

- 위 작품은 「병와가곡집」에 실린 사설시조 작품이다. 중장에서 장사꾼이 한자 어휘를 동원하여 ‘게’를 장황하게 묘사하는 대목은 다분히 풍자적이며, 종장에서는 쉬운 우리말을 두고 거북하게 한자 어휘로 수다스럽게 게를 묘사하고 있는 게젓 장수의 **현학적인 태도**를 익살스럽게 비판하고 있다.

I. 小説

27. 초월계

‘인간으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영역’

■ 수능 답지 보기

1] 2009학년도 수학능력평가

※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인’ 이 ‘상공’ 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 ② ‘박씨’ 와 ‘이시백’ 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③ ‘상공’ 이 ‘박처사’ 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박처사’ 와 ‘상공’ 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처사’ 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 ‘초월계’

‘초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주의해서 파악해야 한다. 사전적으로는 ①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음. ② (능력이나 지혜 따위가)초인간적으로 탁월함. ③ 세상의 명리(名利)에서 초탈(超脫)함. ④ ‘인간으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을 이르는 말

1. 초월적 세계의 지향 : 초월적 세계란 현실 영역을 벗어난, 즉 현실의 한계를 뛰어 넘은 세계를 말한다.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는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에게 현실은 자신이 뛰어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영역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많은 시 작품에서 드러난다.

2. 초월적 존재 : 인간과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 존재.
 신(神)과 같은 존재.

■ 작품으로 이해하기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김시습

잔치가 끝나자 임금이 박생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기 위하여 손수 선위문(禪位文)을 지었다.

① 염주의 땅은 실로 풍토병이 생기는 곳이므로, 우(禹)임금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하였고, 왕(穆王)의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이 마르면 뜨거운 구릿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불에 쪼인 뜨거운 쇠덩이를 먹어야 한다. 야차(夜叉)나 나찰(羅刹)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 없고, 도깨비가 아니면 그 기운을 떨 수가 없는 곳이다. 화성이 천리나 뻗어 있고 칠산이 만 겹이나 둘러 데다, 민속이 강하고 사나워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 지세도 굴곡이 심해 험준하니, 신통한 위엄이 아니면 이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 아아, 동쪽 나라에서 온 그대 박아무개는 정직하고 사심(私心)이 없으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다. 남을 포 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어리석은 자를 계발하는 재주도 지니고 있다. 인간 세상에 살아 잇을 때에는 비록 현달(顯達)하지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길게 믿고 의지할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마땅히 도덕과 예법으로 백성들을 지극히 착하게 만들라.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라. 하늘을 본받아 뜻을 세우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던 일을 본받아 나도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겠다.

아아, 그대는 삼가 받을지어다.

박생이 이 글을 받아들이고 응낙한 뒤에, 두 번 절하고 물러 나왔다. 임금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축하하게 하고, 태자의 예절로써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중략)

박생이 문을 나서자, 수레를 끄는 자가 밭을 헐다던 수레바퀴가 넘어졌다.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쓰러졌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❶ 아래를 참고하여 ㉠을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는 김시습이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통분하여 경주 금오산에 은거할 때 쓴 것으로, 자신의 철학 사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박생은 작가의 사상적, 철학적 이념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염부주 임금과의 대화를 통해 유교, 불교라는 당시의 지배적 사상과 군주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청렴하고 강직한 박생이 염부주 왕의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은, 현실의 불의를 저승에서나마 다스려 보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염부주’는 현실에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심판을 받는 공간이 되겠군.
- ② 강직하고 과단성 있는 박생의 성품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작가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어.
- ③ 작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군주는, 도덕과 예법을 중시하고 몸소 실천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는 인물이라 할 수 있어.
- ④ 박생이 인간 세상에서 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작가가 혼탁한 정치 상황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실과 관련이 있겠군.
- ⑤ 박생이 임금에게서 왕위를 물려받는 행위는, 군주가 되어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 싶은 작가의 욕망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어.

☞ (보기)에서 ‘현실의 불의를 저승에서나마 다스려보겠다는 작가의 의지’라 했으므로, 작가가 현실에서는 자신이 군주가 되어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고전소설에 출제된 속담 및 한자성어1

최근 3년 고전소설 마지막 문제에 출제된 속담 및 한자성어

■ 한자성어 정리

1. 2008 수능 30번, 김만중 <사씨남정기>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

예) 나는 웬지 나의 이런 표리부동을 오래 부지할 것 같지 않았다.

《박완서, 도시의 흥년》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예) 중벌을 받고 있는 적객 신분으로서 조용히 근신하지 못하고 난리에 가담하여 난민 대장이 되다니 이 무슨 경거망동일까?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전국책》의 〈초책(楚策)〉에 나오는 말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 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예) 본시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은 차츰 잔인하게 변화하였으며 방약무인의 젊은이로 성장했다.《박경리, 토지》

-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2. 2006년 6월 모의평가 28번, 김만중 <구운몽>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 :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예) 모두들 눈을 빛내며 이구동성으로 외쳤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② 갑론을박(甲論乙駁) :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 ③ 설왕설래(說往說來) :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욕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

예) 군기고를 깨자는 등, 아니, 그것은 국법에 걸리는 일이니 황사평으로 가서 동춘 백성과 합세하자는 등, 설왕설래 중구난방으로 입방아를 찧을 뿐 장두 없는 무리들이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④ **중구난방(衆口難防)** :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예) 간부들이 모두 잡혀 가고 피신해 버렸기 때문에 눈에 띄는 지도자 한 사람 없이 중구난방으로 핏대를 올리며 소리만 내지르고 있었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⑤ **이심전심(以心傳心)** :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예) 길상이는 어쩐지 상현이 도령이 싫었다. 이심전심으로 그쪽에서도 길상이 싫은 모양이었다.《박경리, 토지》

3. 2006년 9월 모의평가 47번, 작자미상 <숙향전>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예) 요즘은 고립무원,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길을 가다가도 목덜미가 설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박경리, 토지》

③ **혈혈단신(孑孓單身)** :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예) 이듬해 봄 첫 아이를 보았다. 아들이었다. 반백 년을 혈혈단신으로 견뎌 온 처지에 얻은 혈육이니 세상에 둘도 없는 귀둥이일 수밖에

《이문구, 해벽》

④ **사고무친(四顧無親)** :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예) 고향이라곤 하지만 사고무친이긴 객지와 다를 바 없어 혼례를 치르러 처가에 갈 때 후행으로 따라가 줄 만한 먼 친척도 없다는 한탄과...《박완서, 미망》

⑤ **진퇴유곡(進退維谷)**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예) 왜적들은 나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유곡이 되어 버린다.《박종화, 임진왜란》

4. 2007년 6월 모의평가 46번, 작자미상 <임진록>

- ① **일벌백계(一罰百戒)** :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
- ② **유구무언(有口無言)** :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예) 재하자는 유구무언이라니 양반에게 말대답 못하는 법이다.
《홍명희, 임궫정》
- ③ **청천벽력(靑天霹靂)** :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토사구팽(兔死狗烹)** :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 ⑤ **비분강개(悲憤慷慨)** :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
예)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끝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익준은 비분강개를 금하지 못하는 것이었다.《손창섭, 잉여 인간》

5. 2007년 9월 모의평가 32번, 작자미상 <전우치전>

- ① **침소봉대(針小棒大)** :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예) 임이네가 침소봉대해서 한 말을 곧이들은 강청택은 정말 마을을 쫓겨날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박경리, 토지》
- ② **목불인견(目不忍見)** :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
예) 부서진 책상과 사무 집기들이 온통 목불인견의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 ③ **수수방관(袖手傍觀)** :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 ④ **각골통한(刻骨痛恨)** :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 ⑤ **기사회생(起死回生)** :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예) 강 씨는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물론 누구도 그의 기사회생을 기대하지 못했다.《이동하, 장난감 도시》

6. 2008년 6월 모의평가 39번, 작자미상 <조웅전>

- ① **선견지명(先見之明)** :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예) 그 시절에는 우연만치 똑똑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테 밖에 앉아서도 돈벌이를 상당히 할 수가 있었다.

《이기영, 고향》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예) 원삼이 처도 생전 못해 본 유치장 생활에 근 이십 일이나 노심초사를 하느라고...《염상섭, 삼대》

③ **식자우환(識字憂患)** :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④ **시시비비(是是非非)** :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툼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예) 당신네들 치안이 물샷틈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소? 적반하장이라더니 피해자를 보고 뭐 어째요?《박경리, 토지》

■ 속담 정리

1. 2006년 수능 51번, 작자미상 <유충렬전>

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목마른 놈이 샘 판다**

-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③ **가는 날이 장날**

-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조금 주고 그 대가를 많이 받는다는 말

⑤ **그 나물에 그 밥**

-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

2. 2007년 수능 45번, 작자미상 <적벽가>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어려운 상황을 가까스로 피하니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뜻으로,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지 많은 나무가 잠잠할 적 없다.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⑤ 병 주고 약 준다

-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체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9. 고전소설에 출제된 속담 및 한자성어2

최근 3년 고전소설 마지막 문제에 출제된 속담 및 한자성어

■ 한자성어 정리

1. 2008 수능 30번, 김만중 <사씨남정기>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
예) 나는 웬지 나의 이런 표리부동을 오래 부지할 것 같지 않았다.
《박완서, 도시의 흥년》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예) 중벌을 받고 있는 적객 신분으로서 조용히 근신하지 못하고 난리에 가담하여 난민 대장이 되다니 이 무슨 경거망동일까?《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전국책》의 <초책(楚策)>에 나오는 말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예) 본시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은 차츰 잔인하게 변하였으며 방약무인의 젊은이로 성장했다.《박경리, 토지》
-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2. 2006년 6월 모의평가 28번, 김만중 <구운몽>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 : 입을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예) 모두들 눈을 빛내며 이구동성으로 외쳤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② 갑론을박(甲論乙駁) :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 ③ 설왕설래(說往說來) :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

이 오고 감

예) 군기고를 깨자는 등, 아니, 그것은 국법에 걸리는 일이니 황사평으로 가서 동촌 백성과 합세하자는 등, 설왕설래 중구난방으로 입방아를 찧을 뿐 장두 없는 무리들이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④ **중구난방(衆口難防)** :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예) 간부들이 모두 잡혀 가고 피신해 버렸기 때문에 눈에 띄는 지도자 한 사람 없이 중구난방으로 핏대를 올리며 소리만 내지르고 있었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 ⑤ **이심전심(以心傳心)** :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예) 길상이는 어쩐지 상현이 도령이 싫었다. 이심전심으로 그쪽에서도 길상이 싫은 모양이었다.《박경리, 토지》

3. 2006년 9월 모의평가 47번, 작자미상 <숙향전>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예) 요즘은 고립무원,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길을 가다가도 목덜미가 설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박경리, 토지》

- ③ **혈혈단신(孑孓單身)** :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예) 이듬해 봄 첫 아이를 보았다. 아들이었다. 반백 년을 혈혈단신으로 견뎌 온 처지에 얻은 혈육이니 세상에 둘도 없는 귀둥이일 수밖에. 《이문구, 해벽》

- ④ **사고무친(四顧無親)** :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예) 고향이라곤 하지만 사고무친이긴 객지와 다를 바 없어 혼례를 치르러 처가에 갈 때 후행으로 따라가 줄 만한 먼 친척도 없다는 한탄과...《박완서, 미망》

- ⑤ **진퇴유곡(進退維谷)**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예) 왜적들은 나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유곡이 되어 버린다. 《박종화, 임진왜란》

4. 2007년 6월 모의평가 46번, 작자미상 <임진록>

- ① **일벌백계(一罰百戒)** :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

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

- ② 유구무언(有口無言) :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예) 재하자는 유구무언이라니 양반에게 말대답 못하는 법이다.《홍명희, 임궫정》

- ③ 청천벽력(靑天霹靂) :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토사구팽(兔死狗烹) :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 ⑤ 비분강개(悲憤慷慨) :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

예)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끝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익준은 비분강개를 금하지 못하는 것이었다.《손창섭, 잉여 인간》

5. 2007년 9월 모의평가 32번, 작자미상 <전우치전>

- ① 침소봉대(針小棒大) :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예) 임이네가 침소봉대해서 한 말을 끝이들은 강청택은 정말 마을을 쫓겨날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박경리, 토지》

- ② 목불인견(目不忍見) :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

예) 부서진 책상과 사무 집기들이 온통 목불인견의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 ③ 수수방관(袖手傍觀) :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 ④ 각골통한(刻骨痛恨) :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 ⑤ 기사회생(起死回生) :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예) 강 씨는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물론 누구도 그의 기사회생을 기대하지 못했다.《이동하, 장난감 도시》

6. 2008년 6월 모의평가 39번, 작자미상 <조웅전>

- ① 선견지명(先見之明) :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예) 그 시절에는 우연만치 똑똑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테 밖에 앉아서도 돈벌이를 상당히 할 수가 있었다.《이기영, 고향》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예) 원삼이 처도 생전 못해 본 유치장 생활에 근 이십 일이나 노심초사를 하느라고...《염상섭, 삼대》
- ③ **식자우환(識字憂患)** :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 ④ **시시비비(是是非非)** :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툼
-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예) 당신네들 치안이 물샷틈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소? 적반하장이라더니 피해자를 보고 뭐 어째요?《박경리, 토지》

■ 속담 정리

1. 2006년 수능 51번, 작자미상 <유충렬전>

- 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목마른 놈이 샘 판다**
-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 ③ **가는 날이 장날**
-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조금 주고 그 대가를 많이 받는다는 말
- ⑤ **그 나물에 그 밥**
-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

2. 2007년 수능 45번, 작자미상 <적벽가>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어려운 상황을 가까스로 피하니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뜻으로,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능가지 많은 나무가 잠잠할 적 없다.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⑤ 병 주고 약 준다

-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제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음미하는 태도’

■ 수능 답지 보기

1 200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6번 문항

※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 ②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 ③ [A], [B]에서는 모두 **觀照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 ⑤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 觀照적 태도

시적 자아의 태도란 시 속에 나타난 시적 대상, 현실 세계 또는 독자에 대한 서정적 자아의 자세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특정한 현실에 처한 화자의 심리적 상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중 觀照적 태도란 시적 대상을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비취진 대로 과장 없이 진솔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말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청 노 루

—박 목 월—

머언 산 청운사 /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 / 맑은 눈에

도는 / 구름

❶ 이 시는 멀리 보이는 산사의 모습, 새싹이 나는 느릅나무와 산길, 청노루 등의 몇 가지 소재로 자하산의 봄 정취를 표현하고 있다.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하게 한다. 화자는 관념 속에 있는 여러 시적 대상을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관조적 태도라 한다.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 수능 답지 보기

1 2008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13번 문항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⑤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 성찰

성찰이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를 말한다. 윤동주의 ‘참회록’, ‘쉽게 씌어진 시’, 이상의 ‘겨울’, 김영랑의 ‘독을 차고’ 등의 작품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學費封套)를 받아

대학(大學)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教授)의 강의(講義)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중이던 1942년에 쓴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 조국을 떠나와 일본에 살면서 시(詩)나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자책하고, 자아를 성찰하여 자신의 갈 길을 정립하고자 한 작품이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좌절과 변민, 무력감을 부끄럽게 느끼면서 끝없는 모색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시인의 사명감을 자각해 가는 성찰의 모습을 솔직하고도 섬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II. 現代詩

3. 시상전개과정-회상

‘화자가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며 시상이 전개됨.’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실을 초월하려는 종교적 신념이 드러나 있다.
- ④ 서글프면서도 강렬한 설득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 ⑤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2 2007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 (나)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 ②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 ③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④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 시킨다.
- ⑤ 각 연마다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 ‘회상에 의한 시상 전개 과정’이란?

‘시상(詩想)’이란 시에 담긴 사상이나 감정을 일컫는다. 작가는 한 편의 시를 짓기 위해 이 시상을 일정한 질서에 의해 조직한다. 논리적 관계에 맞게 구성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르기도 하고, 시인의 연상을 따라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질서가 바로 ‘시상의 전개 과정’이다.

시간의 흐름이 시상 전개의 중요한 질서를 이룰 때 시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한다. 시간의 변화는 다양한 양상으로 작품에 나타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는 ‘아

침-점심-저녁’, ‘봄-여름-가을-겨울’의 자연적 시간의 순서에 따르는 형태와 ‘현재-과거-현재’와 같이 인위적으로 재구성된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현재-과거-현재’의 구성을 취하면서 ‘과거’의 시상이 화자의 기억에 의해 재구성된 것일 때 ‘회상에 의한 시상 전개’라고 부른다. 즉 ‘과거’가 화자의 삶·생활·사상·감정을 담고 있으면서 ‘현재’의 화자가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고 있는 형태의 시상 전개 방식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사 향

김 상 욱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썰므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숨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❶ 이 시조는 처음 부분에서 화자가 눈을 감으며 회상을 시작하고 있다. 1연에서는 고향 마을의 전경(全景)을 회상하고 있고, 2연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에 젖어 들고 있으며, 3연에서는 가난하지만 어질고 고운 고향 사람들의 생각에 빠져든다. 그리고 끝 부분에서 눈을 뜨며 시상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풍경을 그리듯이 보여 주고 후반에 가서 화자의 정서 표출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 (나)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 ②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 ③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④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 시킨다.
- ⑤ 각 연마다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 시킨다.

■ ‘선경후정에 의한 시상 전개 과정’이란?

처음에 사물 또는 풍경을 그리듯이 보여 주고 뒤에 가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방법이다. 본래 한시에서 발달하였으며, 현대시에서도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지훈의 「봉황수」를 들 수 있는데, 퇴락한 궁궐의 모습을 서경으로 묘사한 후, 후반부에서 화자의 심정을 봉황새에게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봄비

허난설현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春雨暗西池(춘우암서지)
찬바람이 장막 속 숨어들 제	輕寒襲羅幕(경한습라막)
뜬시름 못내 이겨 병풍 기대니	愁依小屏風(수의소병풍)
송이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지네.	薔頭杏花落(장두행화락)

- ❶ 이 작품은 앞 부분에서 공간적·시간적 배경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정적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한시의 일반적인 시상(詩想)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다. 1~2행에서는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묘사되어 있다. 봄비는 보슬보슬 연못에 내리고 있고 장막 속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런 서경은 화자로 하여금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데 3~4행에서는 이런 화자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이는 ‘시름’이라는 단어를 통해 직접 표현되었고, 흩날리는 살구꽃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젊은 날이 덧없이 지나가는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표현되었다.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 (나)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 ②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 ③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④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 시킨다.
- ⑤ 각 연마다 선경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 시킨다.

2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 ‘시간의 흐름, 회상’

1. 시상 전개 방식

수능에서는 대체로 시상(詩想)을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 (예 : 시상을 파악하다/시의 전개 방식을 확인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시인은 자신의 시상을 일정한 질서에 의해 한 편의 시로 조직해 나간다. 이렇게 소재를 배열하여 주제를 구현하는 과정과 시의 구조를 일컬어 ‘시상의 전개’라고 한다. 이러한 시상의 전개는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시에 따라 그 나름의 규칙성을 띠고 있다.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시 전체의 특징, 더 나아가 그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정서, 즉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 하루 중의 시간, 계절, 시대 또는 과거·현재·미래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조화미를 나타낸다. 시간의 변화는 순행적인 것만이 아니라, 역순행적인 것으로도 나타나는데 역행적인 구조는 주로 회상에 의존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아침 이미지

박남수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 주지만
스스로는 땅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地上)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새벽(開關)을 한다.

❶ 이 시를 수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체적인 시상이 펼쳐지고 있어.
- ② 시적 자아의 주관적 감정을 걱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③ 이미지 보다는 음악성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
- ④ 어둠이 부정적 속성을 의미하는 상징어로 사용되고 있군.
- ⑤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어.

전 12행의 연시인 이 시는 시간적 느낌에 따른 구성으로 기·승·전·결의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2행의 첫째 단락에서는 물상의 생성을 어둠 속에 있던 ‘새’, ‘돌’, ‘꽃’ 이 아침이 되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3~5행의 둘째 단락에서는 어둠이 아침과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서술함으로써 어둠의 소멸을 보여주고 있다.

6~10행의 셋째 단락에서는 밤새도록 어둠 속에서 ‘무거운 어깨’로 있던 물상들이 마침내 아침 햇살을 받음으로써 자연적 생의 울동을 회복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의욕적인 삶의 움직임으로까지 확대된 건강한 모습을 회화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1-12행의 넷째 단락은 아침의 신비로움을 ‘개벽’이라는 시어로 집약하여 시상을 응결시키고 있다.

정답 ①

생의 감각

김광섭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과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내게서 간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엔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주었다.

시간의 역전(逆戰)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시간의 역전은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되었다는 의미이다. 시간은 ‘과거→현재→미래’의 순서로 흐르기 마련인데(순차적 구성),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시간의 흐름이 ‘미래→현재→과거’로 제시된다면 시간의 역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시인은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던 과거의 절망적 상황 및 독 기슭의 채송화를 통해 생의 감각을 되찾게 된 과거의 경험(3·4연)과 그러한 경험 이후 새벽에 바라본 현재의 세상의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한 느낌(1·2연)을 순서를 뒤바꿔 제시하고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

■ 수능 답지 보기

1 2006년 6월 모의평가 20번

- ※ (나)와 (다)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으로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설화적 인물과 사건을 빌려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 어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2 2007년 9월 모의평가 31번

- ※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장적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반어’란?

시인, 작가가 자신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표현을 하여 날카로운 멋과 예리한 감각을 발휘하는 기법이다. 즉 원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진술하는 표현방법이다. 원래의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서로 반대가 된다. 속에 있는 생각을 한번 비틀어 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를 강조하거나 대상을 풍자하는 효과가 있다. 대체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와 표현된 내용 사이에 모순 관계가 성립된다. irony(아이러니)라고도 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❶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시에서 임과의 이별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고통도 감내하면서 임에 대한 축복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어 3연에서는 진달래꽃을 통한 사랑의 확인과 희생의 태도가 드러나며 마지막 연에서 임과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의 절제를 말함으로써 한국 여인의 인종(忍從)의 자세를 보여준다.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정신이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임이 떠날 때 화자는 매우 슬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여 반어적 표현을 볼 수 있다.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문항

※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문항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역설’이란?

본질적으로는 참이나 외견상으로는 모순되는 진술, 형용을 하여 경이감, 신선감을 주는 기법이다. 진술된 내용이 일상적 논리로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모순 어법과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관계에 모순이 성립되는 모순 형용이 있다.

예)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정지용‘유리창’) - 모순형용

■ 작품으로 이해하기

새

-김지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날으는 새여
뭉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뭉인 이 가슴

■ 사물이 폭폭 썩어가는 더운 여름날 화자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창밖 푸른 하늘

흰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새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육체의 괴로움과 암울한 심리를 토로하며 자유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4연의 ‘날이 밝을 수록 침침해 가는’은 밝은데 침침하다고 했으므로 모순된 표현으로 역설법에 해당된다.

II. 現代詩

8. 상징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9번

※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상징’이란?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 사상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 관념만으로 나타낸다. 대체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작용한다. 상징은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관습적 상징 :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었다가 때문에 관습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상징

예) 비둘기 - 평화의 상징, 백화 - 순결의 상징

- ② 개인적 상징 : 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해 낸 상징

예)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관습적인 상징에 속하지만, 윤동주의 <십자가>에서는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개인적 상징으로 사용된다.

- ③ 원형적 상징 : 역사, 문학, 종교 등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남으로써 인류에게 유사한 정서나 의미를 불러 일으키는 상징

예) 물 - 생명력, 탄생, 죽음, 소생, 정화와 속죄, 생성 등의 원형적 상징을 지닌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2007 수능)


교목

-이육사-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넓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위 작품은 가혹한 시대를 견디어 내는 견고한 정신의 아름다움을 ‘교목’이라는 상징적 사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의 제목인 ‘교목(喬木)’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로 관목과 반대되는 큰 키의 나무’를 두루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암담한 현실에 저항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 자신의 꿋꿋한 기상과 단호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아울러 ‘넓은 거미집’, ‘검은 그림자’, ‘바람’ 등의 시어 역시 화자가 처한 어려운 현실, 암담한 시대 상황, 외부의 힘이라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II. 現代詩

9. 낮설게 하기

일상화되어 친숙한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낮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

■ 수능 답지 보기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록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나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디다’는 뜻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 이미지 : ……
 - 특이한 표현 : ……

- 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 ② ‘장벽에 / 무시로 인동 삼킨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낮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 ③ ‘덩그럭 불이 / 도로 피어 붉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하얗다’를 ‘하이얗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 ‘낮설게 하기’란?

20세기 초에 러시아와 체코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러시아 형식주의가 표방한 분석방법과 객관적 서술묘사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예술은 실생활의 정확한 재현이 아니라 도리어 생활의 모습을 일그러뜨려서 낯설게 만들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운율도 실상은 무미건조한 생활 언어의 억양을 일그러뜨려 우리의 습관화된 청각을 자극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예술은 새로운 사실의 개발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적 반응을 일으키는 일상의 사실을 비상(非常)하게, 낯설게 보이게 한다는 생각이다. 형식주의자들은 낯설게 하기를 예술의 중심과제라고 강조하고 '예술의 목적은, 사물이 알려진 그대로가 아니라, 지각되는 그대로 감각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술의 여러 테크닉은 사물을 낯설게 하고, 형태를 어렵게 하고, 지각을 어렵게 하고, 지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증대시킨다'고 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깃발

유치환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퍼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바닷가에서 휘날리고 있는 깃발을 '소리없는 아우성' 이라고 은유로 표현한 것은 '낯설게 하기'의 절묘한 사례이다. 비유는 이질적인 것의 결합을 통해서 생소한 느낌을 전해 주기 때문이다. '반달 같은 눈썹, 샛별 같은 눈' 등의 진부한 비유도 하도 많이 써서 관습화되어 버렸지만, 처음에는 낯선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깃발이 '손수건, 순정, 애수'와 결합되어 '깃발'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슬프고 애달픈 마음'의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깃발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낯설게 하기'의 효과이다.

불행·재해를 막으려고 율 때 쓰이는 주문의 성격을 지닌 언어

■ 수능 답지 보기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나)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보 기>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의 「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주술적 언어’란?

주술은 자연재해·질병·죽음 등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행해진다. 주술은 유사성(類似性)과 접촉(接觸)의 2가지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유사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 유감주술(類感呪術)이고 접촉의 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 접촉주술(接觸呪術)이다. 유감주술은 접촉한 것은 유사한 것을 가져온다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그 대상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모방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려는 주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뭄이 계속 될 경우 용왕의 화상을 그려 걸어놓고 비오기를 기원한다든지, 물을 길어다 키로 쳐서 비가 오는 모습을 모방 행위들 역시 유감주술의 사례이다.

접촉주술은 한 번 접촉한 것은 접촉이 단절된 후에도 시공을 초월해서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에 근거를 둔 주술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손톱, 옷조각 및 발자국의 흙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도둑을 잡기 위해 그 도둑의 발자국에 마른 쭍을 놓고 불을 붙이면 도둑의 발이 썩는다고 믿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주술행위는 죽음, 질병, 자연재해, 농사의 풍흉, 재물, 자손의 출산 등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졌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은 인간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간 능력 외의 것들이다. 즉 주술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주술은 인간이 초인간적 힘이나 원칙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활용되는 언어가 '주술적 언어'이다.

그리고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비하고 역동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보고 언어를 활용하여 초자연적 현상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 때 활용되는 언어도 '주술적 언어'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구지가		허난설헌
龜何龜何(구하구하)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수기현야)	머리를 내어라.	
若不現也(약불현야)	내어 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번작이끼야)	구워서 먹으리.	

❶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구간(九干)을 비롯한 수백명의 군중들은 구지봉 산 꼭대기에 모여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다 한다. 비록 신화 속의 이야기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군중의 합창에는 주술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임금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II. 現代詩

11. 자아와 세계의 분열

‘자아가 세계를 내면화 하지 못해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

■ 수능 답지 보기

1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번 문항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자아와 세계의 분열

시적화자가 인식하는 현실의 문제를 치열한 자기 내면화 과정을 거쳐 시 속으로 끌어 오지 못하고 세상과 격리되거나 멀리 떨어진 형태의 거리를 유지하는 현실과 자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을 이룸.

1930년, 시대의 특수성으로 나타난 모더니즘의 두 갈래가 그 대표적 경향을 보임. 경직되고 조잡한 당시의 현실인식 표현과(시를 주장 전달의 수단으로 여겨 거칠고 미숙한 작품을 선보임-‘가프시인집’) 협소한 내면의식에서 자기 방어를 하는 데 치우쳐(현실과 관련된 어떤 발언도 하지 않겠다는 미묘하고 몽롱한 작품을 선보임-‘시문학’) 현실과 자아가 서로 배척할 수밖에 없는 부조화 현상이 발생됨.

■ 작품으로 이해하기

비

정지용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 바람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멋은 듯
새삼 돋는 빗낮

붉은 잎잎
소란히 밟고 간다.

 이 시는 화자의 모습과 감정을 배제한 채, 대상이 되는 자연 현상의 묘사에만 치중한 작품이다. 이 시의 여덟 개 연은 두 개씩 묶여, 마침표를 기준으로 한 네 개의 단락을 이룬다. 그리고 이 단락은 각각 하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비가 내리기 직전 바람 부는 모습→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빗물이 퍼져 흘러가는 모습→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

섬세한 관찰과 독특한 비유, 정교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자아가 세상을 내면화한 노

력을 찾아 볼 수 없다.

‘위로 오르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이미지’

■ 수능 답지 보기

1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5번 문항

-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상승/하강 이미지

상승은 위로 오른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시어나 구절이 위로 오르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면 상승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시어가 구절이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면 하강 이미지가 된다. 따라서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는 이미지의 대조를 이룰 수 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황지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零下) 십삼도(十三度)
 영하(零下) 이십도(二十度) 지상(地上)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별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받은 몸으로, 별받는 목숨으로 기립(起立)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零下)에서
영상(零上)으로 영상(零上) 오도(五度) 영상(零上) 십삼도(十三度)
지상(地上)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  겨울에 헐벗은 나무가 온갖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봄에 꽃을 피우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봄이 되어 꽃을 피우는 나무의 강한 생명력을 상승이미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980년대 억압의 시대에 창작된 점을 감안하면 작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혹독한 현실의 억압에 지지 말고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뭇하게 버티고 나아가야 한다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폭포

김수영

폭포는 곧은 절벽(絶壁)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는 의미(意味)도 없이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瀑布)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떨어진다.

-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의 거침없는 하강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 삶을 촉구하고 있다. 폭포는 시대적 상황 사회적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무사 안일을 추구하는 소시민적 존재를 일깨우는 예언자, 선각자의 모습으로 형상화 되고 있다. 폭포의 세찬 물줄기와 웅장한 소리는 깨어 있는 자의 위대한 힘을 형상화 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13. 대립(對立)과 대비(對比)

‘대립:서로 맞서거나 버팀 혹은 그러한 상황’

‘대비:서로 맞대어서 비교함’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대립(對立)’과 ‘대비(對比)’란?

• 대립(對立, oppsition)

: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또는 그런 관계

• 대비(對比, contradistinction)

: 두 가지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

<참고>

• 대조(對照)

: 둘 이상의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

■ **작품으로 이해하기(2006년 9월 모의수능)**

(가)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배갓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가)에는 ‘그넷줄’에 매어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나(인간)’와 ‘서(西)’로 거침없이 흘러가는 ‘달(자연)’의 처지가 반대(대립)되어 있다.

(다) 어머니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별별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빙(結氷)의 아버지■

28.(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외풍[추위]으로부터 화자를 품에 안고 막아주고 있다. 따라서 '외풍'은 아버지의 화자[어린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맞대어 표현(대비)하기 위한 소재가 '외풍'이라 할 수 있다.

14. 감각적 표현 (심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감각과 관련된 표현’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수학능력평가

※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2] 2007학년도 수학능력평가

※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감각적 표현(심상)’

시에서는 글쓴이가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좀 더 실감나게 나타내기 위하여 감각적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주로 시각, 청각이 중심이 되지만 후각, 미각, 촉각 등이 있고, 심지어는 무게 감각, 운동 감각(대상의 움직임의 지각), 기관 감각(고동, 맥박, 호흡, 소화 따위의 지각), 근육 감각(근육의 긴장의 자각) 등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감각적 표현(심상)이라고 부른다.

1. 시각적 심상 : 시각적인 감각 현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심상으로 독자 들의 심리적 체험 속에 회화적 인상을 부각시키고 시 전체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 모양, 색채, 명암, 움직임

예) 비는 하이얀 진주 목걸이를 사랑한다. — 장만영, <비>에서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 신석정, <그 먼 나라를~>

2. 청각적 심상 : 청각적인 감각 현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심상으로 때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 소리, 음성, 음향

예) 등기둥 줄이 울면 초가 삼간 달이 뜨고 — 이완영, <조국>에서
 머리맡에 찬물을 쇠아 퍼붓고는 — 김동환, <북청 물장수>에서

3. 후각적·미각적 심상 : 이 두 심상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맛과 냄새가 대체로 혼합되어 감지되기 때문이다. ⇒ 냄새, 향기

예)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 서정주, <대낮>에서

물새알은 간간하고 짝조름한 미역 냄새 — 김소월, <물새알 산새알>에서

메 모

4. 촉각적 심상 : 피부 감각적 심상과 전신 감각적 심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촉각적 심상은 신체의 부분들과 결합되어 근육 감각적 심상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 김종길, <성탄제>

5. 역동적 심상 : 역동적 심상은 격렬한 시어와 동작적인 용언을 활용함으로써 제시된다.

예) 푸름 속에 펄럭이는 피깃발의 외침 — 박두진, <3월 1일의 하늘>에서

6. 공감각적 심상 : 감각적 이미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다. 이것은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는 것이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적 인상을 개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 감각의 전이

예)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 소리(청각의 시각화) - 김광균, <외인촌>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시각의 청각화)-박남수, <아침 이미지>

■ 작품으로 이해하기

은행나무

-곽재구-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잎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여기서 희망은 추상적이고 관념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이 때 희망이 '불타는 형상(形象)'으로 우리 가슴에 적힌다고 하여, 희망을 시각적 이미지의 대상으로 바꾸어 감각화하고 있다

II. 現代詩

15. 미적범주

‘숭고, 우아, 비장, 골계 등을 예술적 질서에 맞도록
집약한것’

■ 수능 답지 보기

1 2008년 6월 모의평가 15번

※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미적범주’란?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미의식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이치와 질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를 자연의 조화라고 한다. 자연을 바라보는 ‘나’가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아름다움은 우아(優雅)로 나타난다. 반대로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킬 때 골계(滑稽)가 나타난다. 자연을 인식하는 ‘나’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아름다움은 숭고(崇高)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 비장(悲壯)이 나타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제망매가

월명사

생사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❶ 숭고, 비장, 우아, 골계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어떻게 융합되느냐, 상반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미적범주이다.

제망매가 : '있는것'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고, '있'어야 할 것'은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야겠다는 기대이다.

'어부사시사' ; '있는것'은 어부의 즐거운 생활이고, '있어야 할 것'은 그렇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다.

'월생몽유록' : '있는것'은 현주와 충신이 참혹한 지경에 이른 형편이고, '있어야 할 것'은 현주와 충신은 마땅히 흥해야 한다는 당위이다.

'봉산탈춤' '있는것'은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항거이고, '있어야 할 것'은 말뚝이가 양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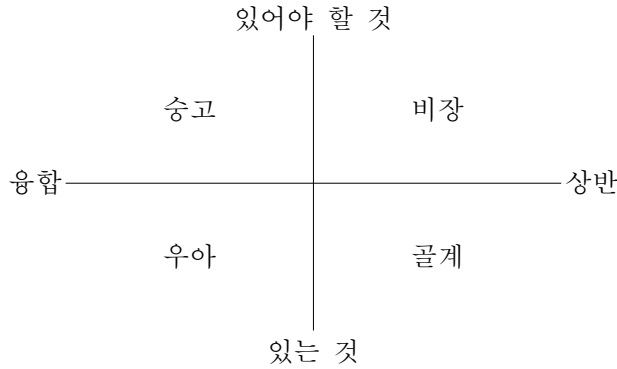
'있는것'과 '있어야 할 것'은 작품에 따라서 서로 융합될 수도 있고, 상반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제망매가'와 '어부사시사'는 '있는것'과 '있어야 할 것'이 융합되어 있고, '월생몽유록'과 '봉산탈춤'은 상반되어 있다.

융합은 '있어야 할 것'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는것'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망매가'는 '있어야 할 것'에 의해 융합이 이루어지고, '어부사시사'는 '있는것'에 의해 융합이 이루어진다.

상반은 '있는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것'을 긍정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월생몽유록'은 '있는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서 상반이 이루어진다. '봉산탈춤'은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것'을 긍정하면서 상반이 이루어진다.

이상 분석으로 네 가지 근적인 미적 범주가 추출된다. 네 가지 미적 범주는 통용되는 명칭에 따라 각각 숭고, 우아, 비장, 골계라 부른다.



이를 좀 더 단순화해서 살펴보면

숭고미는 위대, 거대 등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총탄을 맞고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에서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 앞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숭고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아미는 보기에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다울 때 느껴지는 미감이다. 동양화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조화되어있는 사람에게는 갈등이란 없어보인다. 우아미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갈등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일은 자아뜻대로 된다.

비장미는 일단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 슬픔이 내재되어 있으면서도 장엄함이 드러나는 것, 여기서 느껴지는 미감이 비장미이다.

골계미는 웃음에서 나오는 미감이다. 골계에는 해학과 풍자라는 하위 항목이 있다.

II. 現代詩

16. 해학

'대상에 대해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익살의 웃음'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보기>를 (나)로 바꿔 썼다고 하 때, 나타난 변화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다.
- ② 해학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 ③ 음악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 ④ 우화적 성격이 약화되었다.
- ⑤ 관용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 ‘해학’이란

성격적 기질적인 것이며 태도 동작 표정 말씨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인간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그 약점이나 실수를 부드럽게 감싸며 극복하게 하는 공감적인 태도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님이 오마 흥거늘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중문(中門)나서 대문(大門)나가 지방(地方) 우회 치드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흥고 오논가 가는가 건년산 브라보니 거머횃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 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것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즈 디 므른 디 굴희지 말고 워령충장 건너가서 정(情)옛말 흥려 흥고 것눈을 흘깃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불가벽긴 주추리 삼대 슬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 망정 흥혀 낮이런들 늬 우일 번 하괘라.

● 솔직하고 소박한 표현을 통해 그리워하는 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자가 취한 생동들이 사실적이며 해학적이다. 삼대 줄기를 임으로 착각한 화자는 체면에 상관없이 오직 임을 빨리 보고 싶다는 설레는 마음 때문에 버선과 신발을 벗고 허둥지둥 뛰어나가는 등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달려가보니 화자의 눈에 뜨인 것이 임이 아니라 주추리 삼대였다는 마지

막 부분에서는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멧쩍은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사설시조 특유의 해학성과 낙천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II. 現代詩

17. 시상의 확산(擴散) 및 반전(反轉)

확산 : 시에 나타난 화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흩어져 널리 퍼짐

반전 : 화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뒤바뀜

■ 수능 답지 보기

1 2009학년도 수능 29번

- ※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2 2007학년도 10월 서울시교육청(고3) 13번

- ※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는 사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말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부정적인 사물과 긍정적인 사물을 대비해 삶을 성찰하고 있다.

■ 시상의 확산(擴散)

시상(詩想)이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또는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시상을 일정한 질서에 의해 한 편의 시로 조직해 나간다. 시상의 확산이란 시상을 조직해 가는 과정에서 화자의 감정이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 시상의 반전(反轉)

시상의 반전은 주로 어조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 한용운 <님의 침묵>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슬픔→희망)

■ 작품으로 이해하기(김소월, <초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西山)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빗겨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시상의 확산

☞ <초혼>의 3연은 시상(시적 화자의 슬픈 감정)이 세계로 확산된 경우라 볼 수 있다. ‘붉은 해’는 시간적으로 해질 무렵으로 화자의 슬픔이 더욱 심화되게끔 하며,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우는 것’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슬픔이 다른 대상 즉,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2007년 10월 연합평가)

(가)

1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2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나중에는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네가 네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3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네가
 왜 이런 선연(鮮然)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 김춘수, 「분수」 -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零下) 십삼도(十三度)
 영하 이십도(二十度)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별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 받은 몸으로, 별 받는 목숨으로 기립(起立)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零下)에서
 영상(零上)으로 영상 오도(五度) 영상 십삼도(十三度)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❶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는 사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말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부정적인 사물과 긍정적인 사물을 대비해 삶을 성찰하고 있다.

☞ (가)의 1,2연은 이상을 추구하다 좌절하는 분수의 아픔을 드러내다가 3연은 좌
고 다시 일어서는 분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시상이 반전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겨울이라는 부정적 현실의 시련을 이기고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 의 생명
력과 굳은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시상이 반전되고 있다.

II. 現代詩

18. 화자와 대상의 거리(距離)

화자와 대상(시에 드러난 소재)간의 떨어진 간격,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 수능 답지 보기

1 2009학년도 수능 32번

※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 ‘거리(距離)란?’

- 시적 화자와 시 속에 등장하는 대상간의 간격을 말함. 물리적 거리(실제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로 나눌 수 있다.

(1) 물리적 거리 : 실제적, 공간적 거리

예) 박목월 <나그네>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리

☞ 여기서 ‘길’을 남도 삼백리의 실제적 거리라고 하면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는 삼백리의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서적 거리 : 화자의 정서가 대상이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보통 정서가 객관화되었다고 말하고 이 때 화자와 대상 또는 상황 간의 정서적 연관성 정도를 가리켜 정서적 거리라고 한다.

① 거리가 가까운 경우 : 어떤 대상에 화자의 정서가 비교적 분명히 느껴질 때

예) 서정주 <귀족도>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족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을로 가신 입아

☞ 이 시에서 대상은 죽은 남편이며, 그 화신으로 귀족도를 삼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제 피에 취한 새가 귀족도 운다'라고 하면서 대상과 감정을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② 거리가 먼 경우 : 대상만 전면에 드러내고 화자의 존재가 가려져 대상과의 정서적 연관성(심리)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예) 박남수 <새>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純粹)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화자는 대상인 새에 대해서 담담히 자신이 생각하는 새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2009년 수능)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훑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 나뭇잎 하나」 -

❶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 ② 이 문제에서는 물리적 거리를 가리킨다. ‘골짜기(1연) → ‘길(2연)’→‘대추나무(3연)’→‘나뭇잎 하나(3연)’로 대상이 바뀌면서,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면서 대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II. 現代詩

19. 애상적 분위기

‘슬퍼하거나 가슴아파하는 분위기’

■ 수능 답지 보기

1 2009학년도 수능시험 28번 문항

※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②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⑤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애상적 분위기

‘애상적’의 사전적 의미는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또는 그런 것’이다. 따라서 애상적 분위기란 슬픔, 쓸쓸함, 상실감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분위기를 의미한다. 가을날 길 위에 텅구는 낙엽을 바라 볼 때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을 바라볼 때의 느낌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와사등(瓦斯燈)

김광균(金光均)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홀로 어텔 가라는 슬픈 신호나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설야(雪夜)

김광균(金光均)

어느 먼-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훑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친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먼-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찬란한 의상(衣裳)을 하고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우에 고이 서리다.

❶ ‘와사등’은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모습을 쓸쓸한 느낌을 주는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다. 도시를 무덤에 비유하면서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애상적 분위기를 표현했다. 이를 통해 서구의 산업 문명은 도시와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그 속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소외와 고독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설야’는 눈 오는 밤에 느끼는 막연한 그리움과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깊은 밤 홀로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던 화자는 애상적 분위기에 휩싸여 지난 날 사랑했던 순결한 한 여인을 떠올리며 슬픔과 그리움에 잠기고 있다.

Ⅲ. 古典詩歌

1. 자연 친화 의식

‘자연을 친근하게 여기며 자연과 화합하고자하는 의식’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번 문항

※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 자연 친화 의식

자연 친화 의식이란 자연을 친근하게 여기며 자연과 화합하고자 하는 의식을 말한다. 자연을 삶의 수단이나 단순한 배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때로는 자연이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때 자연 친화 의식은 세속적 삶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의 표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송 순(宋純)

(가)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야 草廬三間(초려 삼간) 지어 닦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淸風(청풍) 혼 간 맞쳐 두고,
 江山(강산)은 드릴 디 업스니 돌너 두고 보리라.

성 혼(成渾)

(나)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 | 로다.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즈 업슨 明月(명월)이라.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늣으리라.

❶ (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한 경지를 노래한 작품으로 자연 친화 의식을 통해 안빈낙도의 삶의 지혜를 터득한 작가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달과 바람은 집안에 들여 함께 살고 강산은 들일 곳이 없으니 집 주변에 둘러 두고 보겠다는 것은 자연친화 의식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나)는 자연을 벗 삼아 지내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종장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조화되어 세속적 근심을 잊고 살겠다는 자연친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즐기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추구하여 삶의 교훈을 얻으려는 지적 관조가 돋보인다.

III. 古典詩歌

2. 감정이입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 속에 이입시키는 방법’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번 문항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 ② ㉡: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풍경의 변화를 통해 적막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 ⑤ ㉤: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감정이입

무생물이나 동·식물처럼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대상이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을 모두 포괄한다. 소설의 독자가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주인공의 감정을 같이 체험하는 것, 시의 독자가 서정적 자아와 동일한 감정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능시험에서는 시의 서정적 자아나 소설의 등장인물이 자신의 감정을 다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주로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규원가(閨怨歌)

허난설헌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끄쳤는고? 난간(欄干)에 비겨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프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싫다. 세상에 설운 사람 수 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 ❶ 감정이입이란 시적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 속에 이입시켜 마치 대상이 자신과 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상과 화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규원가의 서러운 새소리는 임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서글픔을 새소리에 이입시켜 표현한 것이다. 새소리가 즐거운 노랫소리로도 들릴 수 있지만 화자의 서글픈 감정을 이입시켰기 때문에 서러운 새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Ⅲ. 古典詩歌

3. 관념적 속성

‘사물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속성’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번 문항

※ (가)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발옹’은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이다.
- ②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 ③ ‘아치 고절’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 ④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 ⑤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관념적 속성

관념이란 사고의 대상이 되는 의식의 내용이나 심적 형상(心的形象)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매화, 대나무, 바위 등의 사물은 단순한 사물로서의 의미 이상의 심리적 의미나 속성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매화는 우아한 풍치와 고고한 절개,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 청렴함, 바위는 깨끗한 의지와 영원성의 심리적 속성을 가진 사물로 표현되는 것이 그 예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이정보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꿩였는다
 아마도 오상고절(傲霜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대부분의 꽃들은 따뜻한 봄에 핀다는 일반적인 속성을 깨뜨리고 추운 가을에 피는 국

화의 과격적인 개성에 주목하여 국화에 시련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절개라는 **관념적**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화의 이러한 관념적 속성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신념을 새롭게 다지고 있는 것이다.

4. 감각화(感覺化)

‘감각화:어떤 대상이나 내면의 상태를 감각을 통해 구체적으로 느끼도록 표현하는 것’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 ※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2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감각, 감각적, 이미지(=심상)’란?

1. 감각(感覺, sensation)

- 보통 눈, 귀, 코, 입, 피부 등의 오관이 자극되어 생기는 생리적인 반응. 같은 자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개인에 따라 감각의 강도나 질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주로 감수성(감정적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2. 감각적(感覺的)

- 어떤 외부 대상이나 내부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동의감도** 각 기능을 불러 일으켜 전달하는 방법.

3. 이미지(image)

- 마음 속에 떠오르는 감각적 영상 또는 심상.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시인의 내면을 시 속에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나 인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이미지(심상)’의 종류

1. 시각적 심상 : 빛깔, 명암, 모양, 운동 등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한 영상
예) 청노루 / 맑은 눈에 / 도는 / 구름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진 길
2. 청각적 심상 : 구체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를 통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 심상
예) 머리맡에 찬 물을 짝아 퍼붓고는(김동환, 북청 물장수)
접동 / 접동 / 아우래비 접동
3. 후각적 심상 : 냄새를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를 떠오르는 심상
예) 어마씨 그리운 숨씨에 향그러운 꽃지짐(김상옥, 사향)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4. 촉각적 심상 : 촉감을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를 통해 떠오르는 심상
예)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떠올라
5. 미각적 심상 : 맛을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에서 떠오르는 심상
예) 쓰디쓴 약과 같은 인생
6. 공감각적 심상 :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轉移)시켜 표현하는 심상
예)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 청각(휘파람)의 시각화(푸른)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청각(종소리)의 시각화(푸른)

■ ‘이미지(심상)’의 기능

1. 구체성

- '그 여인은 아름답고 우아하다'라는 서술보다는 '그 여인은 맑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한 송이 백합이었다'라는 표현이 훨씬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2. 함축성 : 미묘한 느낌이나 생각을 각종 심상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살진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에서 '흙'은 모성을 함축한다.

3. 감각의 직접성 : 이미지는 대개 감각적 경험과 구체적 사물을 나타내는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뚜렷하고 직접적인 인상을 준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2007년 6월 모의수능)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떼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A]

- 김소월, ■의 집」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B]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㉔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 -

14.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 ☞ [A]는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시간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이얀, 희게, 번쩍이며’(시각)와 ‘울며’(청각)로 표현하여 감각적으로 드러냄

5. 주체와 객체의 전도

‘주객전도(主客顛倒):주인과 손의 위치가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선후, 경중, 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 ‘주객전도(主客顛倒)’란?

-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서로 뒤바뀜.

예) 어제 술이 나를 붙잡고 놓아 주지 않아 밤새도록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 원래 이 문장에서 주체는 ‘나’이고, 객체는 ‘술’이다. 내가 술을 붙잡고 놓지 않은 것을 ‘술’이 ‘나’를 붙잡은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주객전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 정지용 <유리창1>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 여기서 ‘물 먹은 별’은 화자의 ‘눈물’이다. 화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눈물이 화자의 눈에 박히는 것이 아니다. 주객전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봉두(峯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펴 놓은 듯,
 옛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마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 정극인, ■춘곡(賞春曲)■

㉠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 ①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라는 표현은, ‘공명’과 ‘부귀’가 날 꺼리는 것이 아니라, 화자인 ‘나’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것을 주객전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6. 정서의 심화

‘화자가 시적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이 깊어짐’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25번

※ (가)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 과 ‘은하수’ 는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다.
- ② ‘다듬이 소리’ 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 ③ ‘바람’ 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④ ‘별이 낮도록’ 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준다.
- ⑤ ‘서로 비슷하네’ 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중첩됨을 드러낸다.

■ ‘정서의 심화’란?

정서란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청자, 제재)이나 시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이나 생각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서에는 긍정적인 정서(기쁨과 환희, 사랑, 동경과 소망, 여유와 달관, 극복의지, 깨달음)와 부정적 정서(슬픔과 미움, 고통과 죽음, 한과 체념, 허무와 고독, 절망과 좌절 등)로 나눌수 있다. 정서의 심화란 이러한 정서가 시의 진행에 따라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양태사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바람에 실려 오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지만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이 작품은 고국을 떠나 타향에서 향수를 느끼는 작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과 조국

을 생각하며 읊은 노래이다. 서리내린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을 보면서 화자는 고향을 떠올리며, 밤이 깊을 수록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더해진다. 이후 문득 고향에서 들던 다듬이 소리가 타국의 이웃집에서 들려와, 홀로 듣는 정겨움에 향수의 정취는 깊어만 간다.

이 작품에서의 '다듬이 소리'는 시적 자아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제재이고,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시가 진행될 수록 깊어지고 있다.

7. 심리적 거리

‘대상과 화자사이에 느끼는 심적 거리감’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3번

※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② ㉡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 ③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 ④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 ⑤ ㉤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려낸다.

2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는 있겠군.
- ④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군
-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심리적 거리’란?

심리적 거리란 대상과 화자 사이의 멀고 가깝게 느끼는 심적(心的)거리를 말한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추야우중(秋夜雨中)

최치원

秋風惟苦吟(추풍유고음)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나
 世路少知音(세로소지음) 세상에 알아주는 이 없네
 窓外三更雨(창외삼경우) 창밖엔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燈前萬里心(등전만리심)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 밖을 내닫네.

❶ 고향은 마음의 안식처이며, 외로운 영혼의 귀의처이다. 12살 소년의 몸으로 정든 고향을 떠났던 최치원은 수만리 타국에서 늘 고향을 그리워 했을 것이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홀로 등잔불을 맞이하고 있는 가을밤에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국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시이다.

깊어가는 가을 밤의 비바람 속에서 서정적 자아는 괴롭게 시를 읊는다. 시를 짓는 일도 괴롭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적 자아는 밤늦도록 잠 못 들고, 등잔을 마주했으나 마음은 만리 길을 떠돈다. ‘만리 길’은 화자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이며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현실에서 멀어진 화자의 마음을 의미한다.

8. 자연과의 합일

‘자연에 묻혀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

■ 수능 답지 보기

1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2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나)의 화자가 <보기>의 ㉠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군.
- ② 화자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기에 ‘배 한 척’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 ③ 화자는 자신이 긍정하는 삶을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어부로 표상하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뱃사람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
- ⑤ 화자는 ‘옥당’이라는 공간과 거리를 뚝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군.

■ ‘자연과의 합일’(자연 친화)

자연을 친하게 생각하고 자연과 화합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즉 자연을 삶을 위한 수

단이나 단순한 배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감은 또 삶의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때로 자연은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때 자연 친화적인 태도는 세속적 삶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와 관련지을 수 있다.

♠ 자연에 몰입 : 몰입이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자연에 몰입한다는 것은 자연에 묻혀 자연 이외의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연 친화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오우가(五友歌)

윤선도(尹善道)

내 버디 몇치나 하니 水石(수석)과 松竹(송죽)이라.
東山(동산)에 들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숫밧기 쏘 더하야 머엇하리.

구름 비치 조타 하니 검기를 즈로 한다.
벼람 소리 몯다 하니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론인가 하노라.

고즌 무스 일로 휘며서 쉬이 디고,
플은 어이하야 푸르논 듯 누르논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썸인가 하노라.

더우면 곳 휘고 치우면 님 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서리를 모르논다.
九泉(구천)에 불휘 고든 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꽃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뷘연는다.
 더러코 四時(사시)에 프르니 그를 도하호노라.

자근 거시 노피 썬서 萬物(만물)을 다 비취니,
 밤등에 光明(광명)이 너만흐니 쏘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 흐니 내 벌인가 호노라.

❶ <산중신곡(山中新曲)> 속에 들어 있는 6수의 시조로, 서시(序詩) 다음에 각각 그 자연물들의 특질을 들어 자신의 자연애와 관조를 담은 고산윤선도 문학의 대표작이다.

제1수는 이 작품의 서시(序詩)로서 자연과 벗이 된 청초하고 순결한 자연관을 순우리말의 조각(彫琢)으로 잘 표현하였다.

제2수는 물의 영원성을 기린 노래이다. 구름과 바람은 가변적이요, 순간적이라 한다면, 물은 깨끗하고 항상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산이 좋아하는 자연이 되고 있다.

제3수는 바위의 변하지 않는 생명성을 찬양한 노래이다. 꽃이나 풀이 세속적이고 부귀 영화의 상징이라면, 바위는 초연하고 달관한 군자의 모습이다.

제4수는 소나무의 변함없는 푸름에서 깨끗한 절개를 느껴 찬양한 노래이다. 절의(節義)의 모습으로서의 소나무를 기리면서, 자신의 강직한 고절(高節)을 나타내었다.

제5수는 대나무의 푸름을 찬양하여, 아울러 그가 상징하는 절개를 나타낸 것이다.

제6수는 달을 노래한 것인데, 말없이 창공에 떠서 보고도 말 아니하고 오직 세상만 골고루 비취 주는 달만이 벗이라고 하였다.

이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사상과 정신이 잘 응축되어 있으며 특히,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진 물아일의 경지가 잘 나타난다.

9. 향토적 분위기

‘고향(시골)에 온 듯한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

■ 수능 답지 보기

1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는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② ㉠, ㉡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③ ㉠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고, ㉡는 고독을 느끼게 하는 사물이다.
- ④ ㉠는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을, ㉡는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⑤ ㉠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을, ㉡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 ‘향토적 분위기’

1. 분위기 : 한 작품을 일관하는 특징적인 인상 혹은 그 작품을 전체적으로 압도하는 지배적인 정서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기저에 깔리는 배경적 자질을 말한다.

(1) 향토적 분위기 :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분위기

고향(시골)에 온 것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자연 풍취, 또는 자연미와 밀접한 개념)

송인(送人)

정지상(鄭知常)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진한데, 남포에 임 보내니 노랫가락 구슬퍼라.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 건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 더하거니.
--	--

이 시는 한시의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 서경과 서정의 세계를 함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시적인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언어를 함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작품에 담겨 있는 풍부한 서정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1, 3구에서는 자연을 묘사하고 있고, 2, 4구에서는 인간, 즉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대동강 강둑의 푸른 색채와 강물의 푸른 색채가 아름다운 배경을 이루지만, 이 푸른 공간이 결국 이별의 장소임이 나타나는 순간, 자연의 이와 같은 아름다움은 인간의 슬픔과 대조를 이루어 그 슬픔을 더욱 부각시키게 된다. 특히 이 작품은 도치, 과장법에 이어 대동강변의 남포라는 지명은 이 시의 구체성과 함께 향토적인 정서를 환기시켜 준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특히 이별의 눈물을 보태니 대동강 물이 마를 수 있겠느냐는 발상을 통해, 이별에서 오는 슬픔의 크기를 강물의 도도한 흐름으로 나타낸 점이 압권이다.

1. 언어유희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방법

■ 수능 답지 보기

1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교수는 잃어버린 희망과 정열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 ② 교수는 천사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교수는 꿈과 정열을 잃어버린 책임을 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④ 천사는 언어유희를 통해 교수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있다.
- ⑤ 천사는 절망한 교수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2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②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인물의 직업과 공간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언어유희’란?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방법으로,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한다. 단순한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지가 풍부하고 어조가 날카로우며 인생을 풍자하기도 한다. 한자를 이용한 파자 놀이나, 끝말 잇기 등이 모두 이 언어유희 즉 말놀이에 해당한다. 비슷한 음을 중첩하여 말을 이어가는 유음중첩에 의한 언어유희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처럼 자유로운 연상에 의해 의미를 중첩해 가는 언어유희가 있으며, ‘콩글리쉬’처럼 새로운

말을 만들기, 어려운 음운 발음하기도 모두 이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메 모

대체로 대수능에서는 「춘향가」의 ‘서방인지 남방인지’와 ‘한 일자로 아뢰리다.’처럼 비슷한 음을 활용한 언어유희와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등의 해학적인 말놀이를 묻고 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1

봉산탈춤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중략>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서 방 :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 원 : ‘총’ 자, ‘못’ 잘세.

서 방 : 아, 그 운자 벽자(僻字)로군. (한참 킁킁거리다가) 형님, 한 마디 들어 보십시오. (영시조로) “짚세기 앞총은 형겔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멸못이라.”

말뚝이 : 쟈님, 저도 한 수 지을 터이니 운자로 하나 불러 주시오.

생 원 : 재구 삼 년(齋狗三年)에 능풍월(能風月)이라더니, 네가 양반 집에서 몇해를 있더니 기특한 말을 하는구나. 우리는 두 자씩 불러 지었건마는, 너는 단자(單子)로 불러 줄터이니 한 자씩이나 달고 지어 보아라. 운자는 ‘강’ 자다.

말뚝이 : (공) 썩정 바자 구녕엔 개대강이요 텃밭 바자 구녕엔 닭대강이라.

생 원 : 아, 그놈 문장(文章)이로구나. 운자(韻字)를 내자마자 지어 내는구나. 자알 지었다. 그러면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서 방 :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 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蓖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납니까?
 생 원 :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 「봉산탈춤」에는 언어유희의 전형적인 예가 많다. ‘말뚝이’는 ‘양반’과 음이 같은 ‘개
 잘랑 양’, ‘개다리소반 반’을 활용하여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생원’과 ‘서방’
 이 시를 짓는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언어유희를 활용하고 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2

매아미 맵다 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네
 산채를 맵다는가 박주를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에 문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 이정신

- 언어유희는 희곡과 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는 표현방법이다. 이 시
 조에서도 곤충의 ‘맵다, 쓰다’와 산나물과 술의 ‘맵다, 쓰다’의 유사한 음을
 활용하여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다가 좌절하고 고통 받는 권력 계급을 풍자하면서
 자연 속의 건강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어느 여름날에 산나물을 안
 주 삼아 술을 마시면서 매미와 쓰르라미의 울음소리가 마치 산나물이 맵다고 불평
 하는 것 같고, 쓰르라미는 마치 이 술이 쓰다고 불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3

심청가

"영감, 지난달부터 밥 구미는 푹 떨어지고 신 것만 구미가 당기니 어째서 그런가 모르겠오."


"파야하하 거 그러면 태기가 있을란가 부네. 어찌튼 하나만 낳아라. 그런데 신 것이 구미가 당기면 무엇을 먹는가?"

"아 살구 먹었지요."

"살구는 얼마나 먹었는고?"

"아! 씨 되어 보니 닳말 셋 되입니다."

"거 신 것을 그리 많이 먹어. 그 놈은 낳드라도 안 시건방질까 몰라. 이것 농담이요."

-  작품에서도 언어유희를 활용하고 있는데, '시다'--'시건방지다'의 대비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언어유희는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형태로 활용되는 표현방법이다.

2. 교차편집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교대로 보여주는 것

■ 수능 답지 보기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2, \dots, M_k, \dots, M_n$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k,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90, #92,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 ‘교차편집’이란?

교차편집이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교대로 보여주는 편집법이다. 교차편집은 흔히 긴박한 느낌이나 긴장감(서스펜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밖에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관객을 놀라게 하거나, 인물의 성격을 비교할 때, 그리고 현대적 삶의 우연성 표현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홍파 각색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툴게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팡팡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면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넓혀 온다.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는 먼지의 마당.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뽀얗게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❶ 위 작품에서는 레스토랑과 불이의 집 마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교차편집하고 있다. 두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는 고기를 먹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커다란 차이점도 있다. 레스토랑은 부유한 사람들이 머무는 화려함과 풍족함의 공간으로 여유롭게 고기를 먹는 공간이다. 그러나 불이의 가족이 고기를 구워먹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처럼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 영희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영호가 얼굴에 상처를 입으면서 권투시합을 하고 얻어 온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삶의 보금자리가 철거되기 직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행위는 즐거움이 될 리 없다. 어찌면 절박한 삶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차편집 되던 두 사건은 #94에서는 이 두 장면이 겹쳐지는데 이를 통해 부유한 자와 철거민의 삶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IV. 戲曲

3. 플롯의 긴밀한 연결

‘사건의 인과 관계에 의한 긴밀한 연결’

■ 수능 답지 보기

1 2009학년도 수능시험 39번 문항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2, \dots, M_k, \dots, M_n$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k,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90, #92,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 플롯의 긴밀한 연결

플롯은 ‘구성’ 또는 ‘엮어 짜기’로 번역되는데, 소설 작품에서의 ‘사건의 틀’로 사건이 짜여 저서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스토리는 이야기 줄거리 자체로서 사건의 전개만을 의미하지만 플롯은 사건이 전개되거나 반전되는 양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줄거리는 아니며 오히려 인과 관계의 완성이라고 보아야한다. 플롯의 연결이 긴밀하다는 것은 인과관계에 근거한 사건 전개로 사건과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보기>의 플롯의 긴밀한 연결은 교차편집에서 ‘고기’와 같은 유사성, 고급아파트와 낡은 집의 대조점을 통해 주플롯과 부플롯이 긴밀하게 연결됨을 설명하고 있어 플롯의 긴밀한 연결의 본래적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시집 가는 날

오영진(吳泳鎭)

<앞부분의 줄거리>

탐욕적인 맹 진사는 딸 갑분이를 권문 세가 김 판서 댁 도령 미언에게 시집 보내어 영달을 구할 욕심에 신랑감을 보지도 않고 혼약을 맺는다. 그러나 혼례를 앞두고 김명정의 등장으로 신랑이 절름발이라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온 집안이 발각 뒤집힌다. 마침내 맹 진사는 갑분이 대신 하녀인 입분이를 신부로 꾸며 혼례식을 치르기로 꾀를 내지만 예상을 뒤엎고 신랑 미언은 건강하고 수려한 모습으로 혼례식에 나타난다.

<전략>

104 안방(夜)

갑분이가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훌쩍훌쩍 울고 있다.
노랫소리 여기까지 들려 온다.

갑분이 : 모두가 날 노리개루 삼었지 뭐요.

한씨도 딸의 심정을 동정하여 눈물을 금치 못한다.

한씨 : 우지 마라 갑분아. 모두, 애비 잘 둔 덕이다.

갑분이 : 어머니, 갑분인 누구가 갑분인데, 이제라두 건넌방 그이
헌테 가서 말 좀 해 줘요. 입분인 종년이라구…….

한씨 : 인제 와서 낸들 어떡허니.

맹 진사 맥없이 들어온다.

맹 진사 : 아가 갑분아…….

갑분이 : 난! 입분이에요! 종년이에요!

톡 쏜다.

맹 진사 : 그러지 마라 갑분아. 그 입분이가 시집 간대두 정말 시
집 가는 건 너 아니냐. 갑분아 응 그럼! 네가 판서 대감 며느님
이지!

한씨 : 듣기 싫소!

 맹 진사 말문이 막힌다.

105 갑분이 방

 화촉 동방 불이 밝았다. 카메라 ‘팬(PAN)’ 하면 녹의 홍상의
 입분이 방 한 구석에서 비 맞은 참새마냥 오도도 떨고 있다.

 도라지 타령 여기까지 들려 온다.

미언 가까이 오며

미언 : 갑분 아가씨!

 입분이 놀라며, 뒤로 물러 앉을 뿐

미언 : 왜 아까부터 이 사람을 피하기만 하오!

입분이 : …….

미언 : 내가 싫어서 그러시오?

 입분이 송구하여 몸 둘 바를 모른다.

미언 : 나두 무지한 사람이 아니오. 안심하시구 싫으면 싫다구 하
 시오. 갑분 아가씨.

 입분이 살래살래 머리를 가로 흔든다.

미언 : 옳지! 그럼? 낮에 너무 과로했군. 자 그럼!

 미언 상냥하게 입분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입분이 황급히 그 손을 말리며

입분이 : 안 돼요! 안 돼요, 서방님.

미언 : 안 되다니?

입분이는 그만 북받치는 울음을 견잡지 못해 방문 쪽으로 가려고
 일어선다.

미언 : 아가씨!

 입분이 문 앞에 와 선다.

 미언 입분의 뒤에 와 서며

미언 : 안 되다니?

입분이 : 아니에요. 이러시면 서방님께서 큰 욕을 당하세요!

미언 : 욕이라니?

입분이 : 전……전……갑분 아가씨가 아니에요.

미언 : 허! 무슨 이런 소리가 있소? 당신은 갑분 아가씨요. 내 아
 내오.

하고 돌아선다.

입분이 : 아이 어떡허나, 서방님 전! 입분이에요. 이 집 몸종이예요. 하늘이 무서워요. 이 댁 마님이 절 갑분 아가씨루 만들었어요.

미언 말없이 빙그레 웃는다.

입분이 드디어 울음이 터진다.

미언이는 들먹거리는 입분의 어깨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는다.

미언 : 그래요?

입분이 :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이 찢뜩발이라구 싫다구 해서 제가 대신 들어 왔어요. 그러구 저두 서방님께서 찢뜩발인 줄만 알았어요. 시집와 주는 색시도 없는 쓸쓸한 양반인 줄만 알았어요. 저의 신랑은 서방님처럼 기개 높구 점잖은……어른이 아니예요. 서방님은 찢뜩발이가 아니예요.

화촉이 조금 흔들린다.

미언 :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요. 아가씨.

입분이 : 아니예요.

고개를 든다.

미언 :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오?

입분이 : 네? 그럼!

미언 : 모두 내가 꾸민 일이요. 숙부에게 부탁하여 헛소문을 내게 한 것도 사실을 나였소.

입분이 : 네?

놀란다.

미언 : 이렇게까지 그대를 괴롭힐 줄은 모르고 내가 너무 심했나 보오.

입분이 : 저는……차라리……서방님이 몸쓸 다리 병신으루……외로운 분이었으면 좋았겠어요…….

또다시 솟아오르는 눈물

미언 꿈꾸는 듯 이야기한다.

미언 : 세상 한 구석에는 아가씨 같은 여자가 반드시 살아 있으리라 믿었소! 아가씨! 알아 주시겠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입분이 : ……?

참으려는 울음소리가 터져 버린다.

미언 : 사람의 마음이오. 참된 마음이오. 병신이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바칠 수 있는 깨끗한 마음! 부귀에 취하고 권세에 아부하는 사람들허구두 사귀어 봤소. 그들의 천박한 마음씨에는 진절머리가 났소. 내가 찾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소. (어깨에 손을 얹어 돌린다.)

입분이 : (두 뺨에 눈물이 흐른다.)

미언 : 아가씨.....아니 아가씨든 종이든 매한가지오. 나의 아내는 틀림없는 당신이오. 진실한 애정과 순정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소. 알아 주겠소? 입분이. 입분이 알아 주겠소?

입분이 :

감격에 목놓아 울 뿐이다.

<후략>

❶ '시집가는 날'은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각색한 시나리오로 인간의 허욕과 우매함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계락을 통해 결핍과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만적 인물인 맹진사를 통해 허욕과 명예욕을 조소하고 야유하고 있다. 인간의 허욕과 명예욕이 원인이 되어 결국 파멸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과 관계를 부각 시켜 구성의 긴밀함을 확보하고 있다.

V.09 수능용어정리

1. 변형(데포르마송)

대상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왜곡하여 변형시키는 기법

■ 수능 답지 보기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김승옥은 ■사■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서씨’ 가계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 ‘변형(데포르마송)’이란?

데포르마송(déformation)은 왜형 또는 변형이라 번역된다. 대상을 시각적 영상으로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 대상을 고의로 왜곡시켜 그리는 회화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원시시대의 회화에서부터 나타나며 또한 역사상의 모든 시대에 서 그 예를 지적할 수가 있지만, 근대에 이르러 사실주의가 부정됨에 따라 중요한 역

할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소묘의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데포르마송도 있을 수 있지만,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근대 이후의 미술에 있어서는, 작가의 주관이나 특별한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대상을 왜곡시킨다. 거의 모든 유파와 경향에서 의식적인 데포르마송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갱의 종합주의에는,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것이 쓰였다. 또 나비파의 화면에서는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쓰였으며, 모딜리아니에 있어서는 유려한 선묘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쓰였다. 한편 반 고흐, 수틴, 키르히너, 놀데 등 표현주의적 경향이 강한 화가에게는 데포르마송이 특히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 작품으로 이해하기

역사(力士)

김승옥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 ❶ 위 작품은 산업화에 따른 현대의 일상생활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위 글에서 ‘서씨’의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성벽의 돌을 한 손으로 들어 옮기는 것은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기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승옥은 역사(力士)의 후예로 태어나 타고난 힘을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한 채 고작 한밤중에 남몰래 동대문의 벽돌을 옮겨 놓는 서씨의 기행을 통해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비록 능률이 지배하는 대낮이 거리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지만, 동대문의 무거운 돌을 밤에 몰래 옮겨 놓는 그의 행위를 통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생명력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 및 편집

- ◆ 총괄 임봉수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 책임 이상수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
- ◆ 기획 박병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조진형 (대전광역시교육청 파견교사)
- ◆ 집필위원 박민정 (대전괴정고등학교 교사)
이도화 (대전구봉고등학교 교사)
심상일 (대전만년고등학교 교사)
김영범 (대전전민고등학교 교사)
김태훈 (대전지족고등학교 교사)
남상득 (대전지족고등학교 교사)
김기신 (유성고등학교 교사)
김우진 (남고등학교 교사)
강인홍 (남고등학교 교사)
곽은영 (남고등학교 교사)

교과교육혁신지원단 자료집(국어)

2009년 2월 제작

2009년 2월 발행

발행인 : 대전광역시교육감

발행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1294)

전화 : (042) xxxxxxxx

제작처 : 홍문상사 ☎ (042) xxxxxxxx
